朝鮮日報
夕刊 十四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朝鮮日報社

獨墺合併事實上成立

墺政府合併宣言發表 首相臨時大統領就任

獨墺合併에關한新憲法을制定發表

四月十日國民投票實施

【維也納十三日發同盟至急報】墺國政府는 十三日午後 獨墺合邦을 中外에 宣言하엿다

【維也納十三日發同盟至急報】자이스·잉카트首相은 臨時大統領에 就任하엿다

【維也納十三日發同盟至急報】墺國政府는 獨墺合邦에 關한 法律을 制定發布하엿다

【維也納十三日發同盟至急報】墺國政府는 來四月十日 獨墺合邦에 關한 國民投票를 執行할것을 發表하엿다

잉카트

新憲法內容

【維也納十三日發同盟】 자이스·잉카트首相은 十三日夜 首相官邸의 발코니 로부터 라디오를 通하야 全墺國에 對하야 獨墺合邦을 規定하는 新聯邦憲法을 公布하엿다 內容은如左하다

第一條 墺太利는 獨逸共和國의 一州가됨
第二條 一九三八年四月十日 獨逸共和國과의合邦에 關한 國民投票를 施行함
國民投票는 自由秘密投票로하고 滿二十歲以上의 男女가 모두投票에 參加함을得함
第三條 國民投票의 結果는 投票의 過半數로써 決定함
第四條 本法의施行에 對하야 爲先 特別法令을 發布함
第五條 本法은 發布日부터 實施할것으로 墺太利聯邦政府가 그執行에 當함

首相及各大臣署名

墺太利全國軍을 獨逸國防軍에編入

보크將軍司令官就任

【伯林十三日發同盟】維也納入을앞두고 린즈市에滯在中인 히總統은 十三日總統令으로써 全墺太利國軍을 獨逸國防軍에 編入하야 直接의統帥下에 둘것을 聲明하엿다

【베를린十三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 十三日 全墺太利國軍을 其統制下에 編入하는同時에 獨逸國防軍第三軍團司令長官 폰·보크將軍을 其司令官에 任命하엿다 그리고 墺太利領內에 進入한獨逸陸空軍兩部隊 約四萬도 全部 同將軍指揮에 服從하야 墺太利國軍、獨逸國防軍을通한 一元的用兵이 實施되게되엿다

總統令全文內容

【伯林十三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 十三日린즈府에서 墺國軍을 獨逸國防軍에 編入하고 直接統帥下에둘것도 總統令으로 公布하엿는데 總統令全文은如左하다

◀總統은 獨逸陸軍最高指揮官으로서 左記事項을 決定하다
一、墺太利政府는 墺太利와 獨逸共和國과의 合邦을 決定하야 獨逸政府는 本日公布된 法律에依하야 이決定을 承認함
一、따라 余는 墺太利國軍을 獨逸國防軍의 一部로서 余의指揮下에 두기로 決定함
一、폰·보크를 墺太利의 陸軍總司令官에 任命함
一、前墺太利國軍所屬全將兵은 卽時余에對하야 最高指揮官으로서의 忠誠을 誓함
一、폰·보크將軍은 卽時必要한措置를取함

아돌프·히틀러署名

히틀러總統과 잉카트首相演說

【린즈十二日發同盟】나치스의正服에 變身한 히總統은 十二日午後七時四十八分 린즈市公會堂에 到着하야 自動車에 내리여 待機하고잇든 墺太利副首相으로 스·래나우博士·벨法相 린즈市長 軍司令官等 文武官等과 握手交換後 先頭로 市公會堂에갓다 小憩後 히總統은 잉카트首相과 함께 公會堂의 발코니에 出現하야 廣場에群集한 民衆의 歡呼에應하면서 먼저 잉카트首相은 히總統歡迎의 人事를 述하엿다

吾等墺太利國民은 게르만民族으로서 爾後永久히 閣下에服從할것을 誓한다 公然히 宣言하는同時에 吾等은 산·제르만條約第八十八條는 벌서 無效하게된것을 宣言한다 또吾等은 全墺太利의 連絡에 對하야 近近眞實한人民投票를 行할것이다

잉카트首相은 感激에 音聲을 떨고 다음 히總統은 잉카트首相에 答하야 謝辭를 述하매 滿場이 感激과興奮의 도가니로化하엿다 히總統은 잉카트首相의 人事에 對하야 獨墺合邦은 事實上完成되엿다고 宣言을表하야 熱辯을 吐하엿다

諸君이 여기에 參集한것은 게르만民族國家의 建設이다 少數者의 希望이아니오 實로全게르만民族의 意志라는것을 闡明하는것일것이다 卽 余에 獨逸民族指導者로서의 使命을 委託한데 余의사랑하는故國墺太利를 獨逸에 還附할것이 余의 當然한任務이엿다 諸君이 獨墺結合에 贊成함을 表明하는것이 余의 義務를 達成케한것이다 余는 一切의 犧牲을 辭치안코 一切의 貢獻을 行할用意가잇다 獨逸全國民도 이精神을 體得하야 一國家를 形成하고 게르만民族의 光榮을 爲하야 欣然自己를 犧牲하려는바이다 大게르만國家萬歲

總統의힘찬 一言一句에 公會堂과모든市民은 感激의 高潮에 達하야 異口同音으로 絶叫하며 히틀러萬歲를부르는소리는 天地를 振動하엿다

時事解說 산·제르만條約

산·제르만條約은 大正九年 即一九一八年 聯合國側을 一方으로 하고 敗戰國의 墺地利를 다른 一方으로 해서 締結된 平和條約이니 그條約序頭에는 一九一四年 七月十四日 塞耳維國에 對한 墺國의 宣戰과 거기 따라서 墺國二元帝國의 同盟國인 獨逸國의 敵對行爲에 依하야 開始된 戰爭을 대신하야 平和로써하기를 決定한다고 前提하고 뒤이어 墺地利帝國에 잇서서 共和政府가 成立된것과 쳬코 슬로바키아等 新國家의 獨立을 承認한것을 말하고 余文 三百八十一條의 條文과 또 多數의 附屬書를 가지고 그條約을 構成하야노앗다.

×

그中의 八十八條約이라는것은 墺地利國의 現狀維持를 原則으로 定하야 노흔 것으로써 그 全文은 大概 아래와 가튼 것이니 「墺地利國의 獨立은 國際聯盟理事會의 同意가 잇슬 境遇를 除한 以外에 讓渡하지 못할 것으로 하는 同時에 따러서 墺地利國은 該理事會의 同意가 업시 直接 又는 間接으로 또는 各種의 手段에 依하야 (特히 國際聯盟에 加入하기를 許容되기까지 他國의 事項에 干與하는것에) 依하야 그 獨立을 危殆케할것은 어떠한 行動이든지 하지안켓다는 것을 約한다」 이라고 한것이다.

×

이 一條로써만 보더라도 그 條約이 墺地利에 잇서서 얼마나 强制的이라는것은 다시더 說明할것도 업게지만은 墺地利國民은 그들의 意志를 不拘하고 그 獨立을 持續하는수 밧게업시 되얏다. 오늘날 나치스派의 잉카트首相이 어떠케 獨墺合邦으로 通한다고 보든지 하는 것은 말할 것 업고 前首相 슈슈니크가 國民投票로써 그것을 決定지으려고 한것부터 그 條約의 效力이 이미 無視되야 잇는것을 證明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것이다.

佛大使쳬코公使

英國外務省訪問코重要協議

쳬코安全保障要請

【倫敦十三日發同盟】駐英 佛國大使코반氏는 十三日쳬코公使 마사릭크氏와 同道하야 英國外務省을訪問하고 獨墺合邦을中心으로한 中歐政局에 對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會議內容은 發表하지안흐나 最近獨逸의積極的進出策에 鑑하야 쳬코의安全保障에對하야 英政府의支持를要請하엿다는說이 有力하다 쳬코公使館은 右와如한 解釋은너무急激하다고 否定하엿다

英國政府 駐墺公使召喚

【倫敦十三日發同盟】英國政府는 十三日駐墺公使 팔스파렌트氏에對하야 墺太利情勢를報告케하기爲하야 急據倫敦으로 歸還하라고 訓令하엿다 右公使의歸國은 情報入手키爲함으로 所謂外交上의 公使召喚은아니나 形勢如何로는 同公使는 任地에歸還치안흘는지도 알수업다한다

古來의精神에基해 一般法律을改革

家族制度의美風助長

【東京電話同盟】司法制度改正에따러 一般法律도 時代의潮流에 適應하도록 改正하라는議가 議會에 問題되엿는데 司法省에서는前부터 그準備를進行하고잇다
一、刑法
一、民法中親族篇及相續篇
一、家事審判法
一、强制執行法
以上四大法典改正에對하야 硏究하고잇다 卽
一、信託法
一、破産法
一、和議法
도 이에뒤이어 根本的改正을加할方針으로 法制審議會의諮問에附하엿다 그리고 右親族篇及 相續篇과 이에附隨한 家事審判法은 이미條文整理를 마처서 될수잇스면 次期議會에 右三法案을一括提案할豫定下에 年度變換을 기다리어 實質其他諸般準備를 進行하기로 되엿는데 民法、親族篇及相續篇의改正은 西歐法에基準을取한 現行法의欠陷을 社會의複雜化에따러 不便을補正하야써 我國固有의 家族制度의 美風을助長하고 또 家事審判法을 制定하야 骨肉間相爭을 調停하려는 劃期的改正으로서 西歐法適用에依한 立法精神이 비로소 我國固有의 精神에 돌아갈것으로 注目된다

總動員法案 無修正通過有力

【東京電話同盟】國家總動員法案에對한 十三日의 民政黨委員의 會合에서는 거의 憲法問題에終始한感이잇서 따러 十四日의同黨聯合會及 代議士會에서도 反對論及 修正意見等이 續出할模樣인데 政府原案의 修正은 立法技術 其他關係上 困難視되고 또 二十條 其他 削除說도 同樣으로困難하야 이를可決할도 實際上至難함으로 남은것은 原案으로 그대로通過시킬바게업는 實情에잇고 特히現下非常時局에鑑하야 政友會에서도 無修正通過論이 有力하게되엿스므로 大體로 民政黨에서도 相當히有力한 修正論이잇더라도 結局政民協調에基하야 大乘的見地로부터 黨의大勢는 無修正通過에 기우러질바게업는 模樣이다 또社大其他小會派는 全部原案支持의 態度를 明示하고잇스므로 結局多大한 波瀾을 豫想하던本案도時局의 大局的見地로보아 無修正通過는 決定的이라고보는 見解가有力하게되엿다

墺國政變契機로 獨佛國境線緊迫

마지노全線守備兵待機

【巴里十三日發同盟】獨逸의 墺太利進出에伴하는 中歐의危機에對하야 佛國政府가 如何한態度를取할지 注目되는此際 十三日 마탕紙는 낭시市에서온報道라하야 獨佛國境마지노線防備强化를 左와如히傳하야 센세이숀을 이르키고잇다

墺太利의政變을契機로 緊迫化한 國際情勢에備하야 佛獨國境마지노線은 全線에 亘하야 異常한緊張을示하고 同地帶의 守備將士는 全部兵營內에서 待機하고잇다 佛國東部軍管區의 兵士는 全部休暇를取消하엿다

朝香宮殿下 軍事參議官親補

【東京電話同盟】南京攻略에赫赫한武勳을세우시고 요즘凱旋하신 朝香宮鳩彦王殿下께서는 十四日 軍司令官의 御任務를終了하시는同時에 軍事參議官에親補되시사 同日午前十時近衛首相侍立下에 親補式이擧行되엿다

陸軍中將 大勳位 鳩彦王
補軍事參議官

히總統親書로 進軍理由說明

【羅馬十二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 十一日 特히 뭇솔리니首相에 親書를보내여 브렌네르嶺의 共同保障을 確約하는同時에 獨逸政府가 今回의 措置를 取하지아니치못한 實狀을 說明、諒解를 求하엿다 內容은左와如하다

슈슈닉前首相은 獨逸政府와의 協定을 背叛하고 여러가지不信行爲를 敢行하엿다 獨逸政府는 此等 墺太利의 不信行爲를 이以上 座視할수업는立場에서게되엿다 獨逸이 伊國國境附近까지 兵을 進行하게되엿는데 브렌네르嶺을 脅威할意志는업다 이事實은 閣下가 잘諒解하는바이다

도今回의 措置를取함에對하야 民主主義國家가 積極行動을取하야 國際的紛糾를 惹起하리라고는 생각되지안는다

佛內閣의閣僚

【巴里十三日發同盟】十三日成立한 불룸第二次人民戰線內閣의面面
首相兼藏相 레옹·불룸
國防相 에즈알·달리디에
外相 (急進黨) 폴·봉쿠르

불룸氏를首班으로 佛人民戰線內閣再現

【巴里十三日發同盟】社會黨首 레옹·불룸氏는 十二日午後 組閣에成功하야 社會黨、急進社會黨을抱擁한 불룸第二次人民戰線內閣이 成立하엿다 新內閣의主되는 面目는如左하다

首相兼藏相 레옹·불룸(社會黨)
豫算相 샨·데·스파낙세(同上)
外相 죠셉·봉쿠르
內相 마르크·론ㄹ(獨立上院議員)

슈슈닉氏 匈牙利로亡命

【維也納十二日發同盟】墺太利前首相슈슈닉博士는 十一日夜 나치스派에게 保護監禁을 當하고잇든바 十二日 新政府와交涉한結果 其承認을어더 同日夜秘密裡에 維也納을떠나 國外로亡命하엿다 行方은嚴秘에附하여잇스나 어마匈牙利로 向한模樣이다

獨爆擊機越境

駐獨쳬코公使抗議

【伯林十三日發同盟】獨逸爆擊機數臺는 十三日 獨國防軍의 墺國進入에依하야 墺國쳬코北部 보헤미야地方上空에 飛來하야 쳬코國民에 一大衝擊을 與하엿는데 駐獨쳬코公使마스니이氏는 十三日 本國政府의 訓令에 基하야 總統代理 괴링元帥를 訪問하고 獨逸爆擊機의 越境問題에 對하야 抗議하엿다 右抗議에 對하야 괴링元帥는 이問題는 單純한 偶發事件으로 何等政治的軍事的意味를 가진것이아니라고 確信하나 今後如斯한事件이 再發치안토록 適當한處置를取할것을 言明하엿다한다

波蘭、리트와니아 國境監視兵衝突

【와소十三日發同盟】十日夜부터 十一日朝에 亘하야 波蘭 리트와니아國境에서 國境監視隊의 衝突이잇서 波蘭兵一名이 射殺된事件은 波蘭巡邏兵이 리트와니아方面으로부터 侵入하여온 二名의男子를 逮捕하려다가 그들이 리트와니아領內에 入하야 射殺되고 救援하려는者도 또射擊을 受하엿다한다 리트와니아側은 事實無根을 主張하고 波蘭側은 그非友誼的態度를 難詰하엿다

東寨占領

【大同十三日發同盟】黃河를끼고 保德府谷에서 敵約一千을 包圍殲滅 六日河曲에入城 山西西北作戰을 完全히行한 千田部隊는 休息할사이도업시 森林五十里의 難嶮을征服하야 十一日寧武에到達 同日夜半으로부터 西南方五里地點에잇는 東寨의 線에 蟠居한 共産匪 約三千에 對하야 攻擊을開始 十二日朝 東寨를占領하야 敵은 總崩壞하야 南方離縣方面에 潰走하얏는데 我軍은 目下 猛追中이다

警察部長會議日程

來四月 二十五日부터 三日間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開催할各道警察部長會議日程은 左와如히 決定하야 十四日警務局으로부터 發表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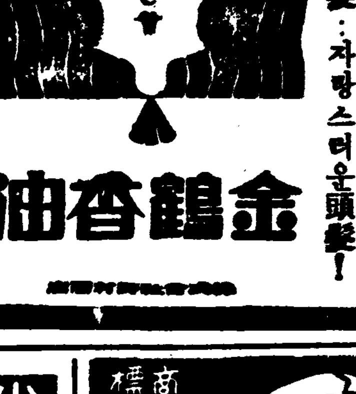
◀四月二十五日(午前) 總督訓示、一、高等法院檢事長訓示 一、警務局長演示(午後)警務局長指示注意、管內狀況報告
◀同二十六日 管內狀況
◀同二十七日(午前) 各局、軍部指示注意、希望◀(午後) 道의意見、希望事項、事務打合

人事·集會

◀石田千太郞氏(總督府鑛山課長) 二週間豫定으로 十四日午後四時十五分京城驛發 東京에出張
◀山田遞信局長 南朝鮮地方出張中 十四日午後七時三十分 京城驛着列車로歸任
◀薩井忠平氏(總督府人事課長) 渡東中十三日午前歸任
◀伊藤泰吉氏(總督府稅務課長)同上
◀森川新一氏(京城日報寫眞部長) 新任人事次來社
◀金光洙氏(本社營業局長)全南北에出張中十四日朝歸任

八面鋒

墺太利 잉카트內相、首相으로다시 大統領으로 推戴。
◇
同時에 獨墺合邦宣言을 中外에 發布하고 墺軍을 獨逸國防軍에 編入。
◇
四月十日 國民投票를 한다하니 나치스의 勝算이 確實한 模樣。
◇
히틀러獨總統의 氣焰 萬丈이로군。
◇
合法的으로 하는以上 英首相은 干涉치 안흐리라는 觀測。
◇
그러하면 獨墺合邦은 獨逸의 完全한 勝利。
◇
滿洲事變以來 먼저 손을써서 失敗본 例가 全無。
◇
日 에디오피아征服、日支事變、日 獨墺合邦等等。
◇
軍備擴張競爭이 積極化할도 當然。
◇
武力을 背景하면 못되는것이 업는때문。
◇
今後의 世界政局 果然如何。

金鶴香油


耳 귀가들리는福音!! 이것은新發賣品으로서電池藥品不要外部에서는안보이지안코永久使用할수잇고또一個年使用됨 サンセイ商會

急告!!! 新學期切迫! 新學期學用品·文房具仕入은在庫豐富한弊店에! 特히初開店諸位의便宜를圖하옵고親切叮嚀히酬應함 東光堂文具部 暴騰以前의仕入品山積! (卸目錄要三錢切手封入) 京城府齋洞四街 電光③三七〇番 振替京城一六三三番

第五十回生募集 京城高等簿記學院(期前) ◀新學期開始四月十六日 ◀學則要三錢切手 ◀各官廳、銀行會社、商店等就職紹介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電話本局五三六〇)

生徒募集 京城女子高等講習院 師範科約七十名入學資格女高普又高女卒 初等教員トナル簡易且優良機關學則郵券三錢 京城府南米倉町一二一 YMCA

生徒募集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新學期開始四月十六日 ◀學則要三錢切手 中等科 第一部、二部、三部 文官科 巡査、看守受驗準備科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電話本局五三六〇)

校長 貴族院議員正四位男爵 沖貞男 中野高等無線電信學校 本科 中卒程度 豫科一年 普通部 高小卒程度 東京市中野區江古田

生徒募集 土木科 測量科 大田工科學院 三月末限出願 學則要三錢切手 四月一日入學 大田府大東町

生徒募集 文部省認可 興文中學校 ◀第一學年一百名 ◀第二學年以上若干名 ◀出願期限三月卅一日 東京市

生徒募集 中央音樂學校 規則要送料 東京市下谷區眞島町

募集 各地支局及本社集金員募集す 朝鮮小學生新聞社 京城府林町八二

朝報案內

入學 京都菜中學校入學紹介 電話光化門

アイスケーキ機 京城府

社員招聘 太平生命京城支社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七三

社員招聘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 京城府長谷川町一二一 朝鮮支部長 白石一男

中央保育學校生徒募集 ◀募集人員五十名 別科若干名 ◀願書提出三月末日限 ◀試驗四月一、二日午前九時半 ◀試驗科目、口頭試問、身體檢査 詳細本校照會 電光一七二三

向上女子實業學校生徒募集 第一學年 約五〇名 資格 普通學校卒業者 願書 〆切三月二十一日 試驗期日 三月二十三日、二十四日、二十五日 詳細京城府天然町三二 (電光四九九)

黃州春光園藝學校生徒募集 ◀募集人員 一年五十名 ◀出願期日 三月二十一日까지 ◀試驗日字三月二十四、二十五日

生徒募集 朝鮮總督府遞信局 電氣工士養成所 入學資格 願書締切 昭和十三年三月二十日 修業期間 一年 出願手續

自動車學生募集 運轉手養成界ノ一大異彩、活動寫眞應用教授ハ本所ガ嚆矢、設備完全、講師大家網羅 官認 東洋自動車講習所 京城武橋町三二 電話本局②五四〇二番

價廉 化學工業叢書 化粧品製造講習要錄 石鹼製造法 잉크와墨汁의製造法 靴墨과特殊塗料의製造法 三圭社化學硏究所

무스는藥이라도自由로製造 ◇立身成功의門 製藥士養成講義 (入學案內)(無代進呈) 東京市·芝區·新橋·六ノ四八 日本通信製藥學校

藥으로滋味나는도모으기

藥 膽 田 理想的胃膽特効劑 卽治水 漢城藥館本店 京城府樂園町

小資本業案內

商標 고초가루 金千壽商店製粉部 時價表請求하시면送呈하겟음니다

體力本位로大旋廻 中等敎育方針再檢討

入學試驗方針도大改善의前提로 各道에通牒, 意見을調査綜合

중등학교입학시험방법의 대해신을 중요사항의 하나로 총독부학무당국에서는 이에 주목하야 작년이래 종래의 학과편중을 두뇌만본위로 양성하야 온것을 체력도 본위로 양성하는 목표하에 허다한 개선을 더하야 그실적은 상당히 주목할만한 가치가잇든바 총독부에서는 조선학교교육상 중요지위잇는 중등학교입학자 선발방법에 다시 쇄신을가할필요가잇다하야 이문제에관한것을 신중이조사연구하야 압흐로 간도에대하야 지난십이일부로 각중등학교입학자선발에 시행한

一、筆記試驗問題의 吟味及所見
二、口頭試驗의方法適否 實績에對한 校長所見
三、身體檢査方法의 適否及實績에對한校長所見
四、筆記, 口頭, 身體檢査成績의綜合考査狀況及校長所見
五、初等學校長의 所見表에對한校長意見
六、筆記試驗問題, 口頭試問事項

등의자료와 도당국의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첩을발하얏는데 총독부에서는 이것을기초로연구를 거듭한후 선발방법, 교육내용에관하야 재검토를 행하기로되엿다

國境警備에對備 警察機一臺增置

警官論功行賞追加豫算은削除 前例에업는廣範圍가理由

평안북도(平北)함경남북도(咸南北)일대국경 경비는 점차완비에 가까워지는중이나 선만일여(鮮滿一如)와 북지(北支)개발에는 일층 강화철저를 기할필요가 잇스므로 총독부에서는 이것을 단행하고자 얼마전에 이동경무과장(伊東警務課長)이 국경경비추가예산안, 경찰관 제이차론공행상(論功行賞) 추가예산안을 휴대하고 동경에출장하야 척무(拓務)당국과 대장(大藏)당국에 량해절충을 행하얏든바 경찰관제이차 론공행상추가예산은 막대한 제일차가잇섯기때문에 척무당국으로부터 삭제를 당하얏고 국경경비추가예산안은 대장당국에대한 수속불비로 그경정을 보지못한대로 십삼일오후귀임하얏다 그런데 그내용인즉 경찰관의 론공행상의 범위는 제일차가 잇섯든 관계도 잇섯기는하얏지만 전례업는 광범위이엇든것이 이번에 삭제된원인이오 추가예산은 만주 북지등의관계상 사감 수정하야 제출하면 통과될모양이다 이와동시에 현재 평안북도경찰부소속경찰비행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한대를더 배치하고자 얼마전에 동경에주문제작중이든바 최근준성되엿스므로 복부평북경찰부장(服部平北警察部長)이 십오일 경성비행장발려객기로 동경에향하야 이것을차저서라고 복강(福岡) 경성을거처오는 이십일일 신의주(新義州)로향할터인데 이로써 평북경찰비행기는 두대로써 금후국경경찰진의 강화철저를도모하게되엿다

河泳珍氏相對 又復寄附金訴訟

이번은第二公普에서

【晉州】진주직업학교(晉州職業學校) 기부금문제로이어 이르키고 다시 하영진(河泳珍)씨를상대로 이번에는 진주제이공립보통학교(晉州第二公普) 학급증설기성회(學級增設期成會)가 기부금 일천백원의 청구소송을제기하여『쎈세이슌』을 이르키고잇다。즉 소화십삼년이월에 제이보통학교에 네학급증설의 여론이 이러나게되자 기성회가 조직되야 하씨도 당시 장녀석근(錫根)군이 동교에입학하게된관계로 솔선하여실행위원(實行委員)이되어 학급증설을 위하여 일천백원을 기부케 되야 약속수형까지 내엿슴에도 불구하고 수년전에동교에 실습지로서 제공한토지를 처분하지안흐면 낼수업다고 종시 듯지안흠으로 회보금청구소송을 진주법원지청(晉州法院支廳)에 제기한것이라하며 장서상필(徐相弼)씨의 명의로 이에대하여 기성회장 서상필씨는다음과가티말하엿다

하영진씨는 기성회탄생당시부터 … 겟습니다 우리는 박금하씨가 직업학교문제로 분주중이므로 좀 참고잇섯스나 사태가 이러케되어서야 어떠케 하는수가잇슴니까 운운

朝鮮神宮祈願祭

매년 조선신궁(朝鮮神宮)에서 거행되는 삼대제의하나인 기원제(祈願祭)는 예에의하여 명십오일오전십시반부터 동신궁에서 행할터인데 봉참자(奉參者)는 남총독(南總督)이하 총독부의각국과장이하 고등관과 민간공직자기타 각방면유력자 오백명이 참렬하여 성대하게행하리라고한다

平壤에常設館 增設運動熾烈

【平壤】최근평양부내에는 영화『팬』이 퍽으나만허저서현재의네곳상설관은 현재이차고넘치어상설관을증가하라는소리가 놉흔터인데 이기회를타서 동부(東部)서부(西部)평양방면에서는 공직자(公職者)들을 중간에두고 인가를바드려고 상당히맹렬한운동을일으키어 금후이문제의 귀추가주목된다

無知가殺人!

무지가나흔참사ー십이일 아침 여덟시오십분쯤되여 경기도포천군이동면 장암리(抱川郡二東面場巖里)에살며부근의도로공사장(林道工事場)에서일하고잇는 윤삼룡(尹三龍)(二三)은 사무실에서 반자리에 다이나마이트한개를 가지고 일러주다가 화약이어러서 잘폭발되지안흠으로 화로에다녹이다가 폭발되여 윤은전신에상처를입고 드듸어그날오후한시에죽엇스며 마침거기에잇든 인부세명도 중상을입어 포천병원(抱川病院)에 수용치료중이나 생명이위독하다

銀貨를僞造 遊興에消費中被捉

【城津】최근성진시내 연초소매점 또는 은행등에서 오십전위조은화가 빈번하게 발견되어 성진(城津)서에서는 범인체포에활동중이든바 십일일 오후한시반쯤 천(千)형사가 시내욱정(旭町)일정목일번지 천명옥(千明玉)(二六)의집 문을열고보죽 전기천명옥의 거동이 수상하므로 가택수사를 하여본결과 의외에도 판조판(鑽造板)연(鉛)기타위조용기구가 잇스므로 그서에인치하고 엄중추궁한결과 오십전은화 위조행사한것을 자백하엿다 전기범인은 절도전과일범으로 이번범행의 동기는유흥에쓸돈을 변통하기위한 남어지 지난이월이십일일부터 석고(石膏)로오십전은화의판을짜가지고 연『메톨』『메달』등으로 도금위조하야 담배집에서 담배를사고는 그우수리로『카페』등에 도다니며 유흥에 소비하엿다는데 현재까지 행사한것은 이십매뿐이라고하나 그의교묘한수법에는 취조경관도 놀라지안흘수업다하며 이것은 근래에드믄범행으로 목하박(朴)사법주임의 엄중한취조를받고잇다한다

"立行列車"緩和策

牽引最高限度로客車를增結 봄마즌旅客의洪水

봄의 여행철을 당하야 기차승객이 점점증가하므로 철도국에서는 지난 십일일부터 부산(釜山)경성사이에 임시급행열차(제일첨열차)를 운전하야 그완화를 도모하고잇는터인데 그래도 부산 신경(新京)사이의 급행『히까리』와 부산봉천(奉天)사이의 급행『노조미』는 요지음에 초만원이여서 어떤때에는정원수보다 일배이상십명이나 초파하야 부산 대전(大田)사이혹은부산 경성사이를 꼽박서서타고오게되는일도 흔히잇다 한다 그래서 철도국에서는 오는십육일 부산서 떠나는『히까리』로부터 비롯하야『노조미』등 급행렬차에 기관차가 끄을힘이잇는 최고한도까지삼등객차를 림시로 더련결하야 약간이나마수송력(輸送力)을더하게하여 몰려드는 승객의 완화를 도모하기로 되엿다한다

今日의卒業式

法學專門 경성법학전문학교제십사회졸업식은 십사일오전열시부터 동교강당에서거행하엿는데 졸업생은 오십오명(내지인삼오명)으로 그중 우등생은 적기네명 개근생은 열여섯명이나되며 졸업생의 대부분은 재판소, 행정관청 은행 회사에 취직되엿다고한다 錢東植(慶北)金永濟(平北)李輔惠(京畿)

槿花實業 부내 안국정(安國町) 근화녀자실업학교(槿花女實)의제삼회졸업식은 십사일오후한시부터 동교강당에서 거행하엿는데 졸업생이 쉰세명 그중우등생은 崔玉子 申東金 文月仙

(사진 상은 법전 하는 근화)

瀆職檢事上告審

□□今日高等法院에서開廷□□

현직검사로서 형사사건관계자로부터 유치금의 향응을밧고또 금전융통을밧은후 편게사건에전부 불기소처분을 내리엿다는의혹으로 수회(收賄)죄에 걸리어 일심에서 징역팔개월에 추징금이천엔 팔원 사십칠전 판결을 밧고공소하야 이심에서는 징역일년에 집행유예오년 추징금 이천엔백구십오원 상사심의 판결을밧앗스나 검사의 상고로 고등법원에까지 너머온 전광양지방법원검사 부내관철정(貫鐵町)일백사십이번지 민부호(閔富鎬)(三)에 관한 수회피고사건 상고심공판은 십사일고등법원에서 창전(倉田)재판장수심 산택(山澤)검사관여하에 열리엿다 사건의 대략은 피고는 재작년 칠월에 진주(晉州)로부터 평양지방법원 검사로 전근되엿는데 이사건의발단은 활동사진관흥행업부내의 유수한흥행업자 박순옥(朴淳玉)과 순영(第一劇)이라는 … 영하는 박순옥(朴淳玉)과 (第一劇)이라는 활동사진관흥행업자 박순옥 사이의 알력이 생기게되여 곳내작년 봄에 김변상(金炳相)이라는 … 고 원장 사기죄등으로 고소하고 박순옥은 김변상을 명예훼손 기물훼기(器物毁棄)죄로맞고소하게되자 바로 피고가 그사건은 전부 취조하는데 작년삼월이십오일부터 목적으로 이십여회에 걸치여 피고에게 요리등를 향응하고 또 피고에게 주식(株式)청산차금으로 일천사백여원을 융통하여주엇는데 피고는 박순옥이가 편의를보아달라는것이라 그러하지만 그의안해김(金)씨일홈으로 주식을하야 사천여원을 도조명례(都明禮)라는 기생을 첩으로부터 생활비가곤란한관계상 박으로부터 금전융통을 바닷스며 피고사이에 얼크러진 소사건을간단히 취조하한후 작년칠월에전부 불기소처분을 내렷다는것인데 검사는 원판결을 파훼하고 피고에게 체형을 가하여달라는 의견을 진술하엿다

酒朋傷害致死

【咸興】알골에우죄ー단천군단천면 문호리(端川郡端川面文湖里)김용관(金溶官)(二)은 지난이월이십오일 그동리 권모(權)의집 아들 백남준재에서 (술을취도록먹고서) …

大膽한美人窃盜 自動車로追擊逮捕!

各百貨店을專門으로窃盜行却 分外生活이端緖

부내황금정(黃金町)이정목일백구십번지에사는 산양헌(山陽軒)여급 흑석성자(黑石成子)(二二)가 최근 분에넘치는 생활을한다는말을드른 본정서원이 십일일 그의『아파ー트』로찾저가서 가택수색을하엿는데 갑진비단 화장품 어린애작난감등 장물로인정되는물건 약오백원어치를 발견하고 전기흑석을 본서로인치하려고하엿든바 그녀자는 변소에가는척하고 박그로나가서 자동차를타고 다라나므로 경관역시자동차를타고 추격하야 영등포(永登浦)하월식당(朝月食堂)아페가서 붓잡앗는데 그는최근수개월간 매일가티부내각『떠파ー트』에가서 필요의물품을 훔처하고 상습적으로 도적질을 하여온범행녀(窃盜女)라고한다

… 번지 오현수(吳賢秀)방에잇는김상옥(金山玉)(二二)은 십삼일오후칠시경에 시내용수정(龍水町)이백팔십삼번지 유용택(劉龍澤)음식점에 재취칠원을받고 작부로드리간뒤에 동일밤열두시경에 집안사람이 잠든틈을타서 의복몃가지를 훔처가지고 도망하여버렷스나 차저달라고 소관용산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여왓다고한다

危險한自動車放置

툭하면盜用放棄 頻頻한택시盜難事件

십사일오전네시쯤 부내대화정(大和町)삼정목 환길(丸吉)『택시ー』에서 자동차한대가 신정(新町)유곽 장월루(長月樓)까지 손님을 태우러갓다가 고장이생겻는데 이고장차를 수리하려고 동자동부에서 응원으로보낸 삼십륙년령『포ー드』(京九一五八)를 운전수 한윤동(韓胤東)(二一)이가 신정『택시ー』아페두고장월로가서 고장차를수리하다가 약삼십분후에 도라와보니 자동차를어떠한자가 타고다라낫스므로곳 본정서에 알려왓다 동서에서는 곳부내각서에 수배하고 범인을 엄탐중이엿섯는데 차만은 동일오전열한시쯤 부내청량리정(淸凉里町)(酒原里町)길가에 버린것을 동대문서원이 발견하엿다고 하며 본정서에서는 범인으로 추정되는『쓰메에리』양복에 이십사오세가량된 청년을 계속엄탐중이라고한다

度量器一齊檢査

부내 종로서에서는 사월중일부터 십팔일까지(十日間)부내일제히 저울, 되등도량형기검사를 하기로되엿다 부정한것을 발견할때에는 폐기처분(廢棄處分)하야서도 엄중처벌할 방침이라 고한다

前債金쓰고도망질

시내도화정(桃花町)사백사십사 …

全州工業補習校入札

【全州】전주공업보습학교(全州工業補習學校)이전문제에 대하야는 그동안누차 본보에보도하얏거니와 그동안 도회계파에서는 설계에 분망하든바 근근그치낫스므로 입찰에부치리라하며 부지는 상생정(相生町)종방공장(鐘紡工場)부지의 동쪽으로 일천백평이나되며 본관교사가 사백일평이라고한다

商工聯合座談會

【全州】전북상공회의소(全北商工會議所)는 작년도에 조직한 이래 제이회 좌담회를 오는오월하순경에 전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리라는데 당시의 출석자는 ▲裡里▲群山▲全州▲南原▲井邑▲金堤▲扶安

長津郡廳全燒

【咸南文社特電】십사일오전삼시 함남장진군장진면읍성리(咸南長津郡長津面邑城里)에잇는 장진군청(長津郡廳)에서는 본청사에서 돌연발화하야 본청사와창고한채를 전소한후 동오시경에진화하얏는데 이곳은 아직도어름이 풀리지안하서 우물물을 사용할수업섯기때문에 수리가극히 여의치못하야 서류 집기하나도 꺼내지못하고 전부소실하얏다 발화원인과 손해는방금조사중이다

小作管理居出안타가 五十圓의罰金刑

朝鮮農地令施行規則에違反 上告審도棄却意見

다른 사람토지의 소작관리자(小作管理者)로서 도다른사람에게 그일을 관리식히고 법정기간안에 관할군수에게 계출을안한관계로 조선농지령 시행규칙(朝鮮農地令施行規則)의위반죄에걸리어 일이심에서벌금(罰金)오십원 판결을밧고 불복상고한 경남김해읍화목리(金海邑花木里) 박원달(朴源達)(五)에관한상고심공판은 십사일 고등법원에서삼전(森田)재판장주심 산택(山澤)검사 관여로 열리엿다 피고는 재작년 삼월이래경성 세일(世一)합명회사소유 경남김해군 진영면(進永面)일대에잇는 논 이천두락에관한 소작관리인이 된후 그해 사월에 김해군 가락면 봉림리(鳳林里) 문위정(文渭井)을 그땅에대한관리자로 다시설정하고 작년봄까지 소작계약체결밋해제와 소작료를 밧는일을 시키면서 법정기간인 설정이후 십오일 이내에 토지가잇는곳군수에게 계출을안하엿다는것인데 검사는 한등상고할리유가업다하야 기각의견을 진술하엿다 이사건은 농지령이 실시된후 그범령이 일반에게 철저하지도 못하야 비저진범죄인만큼 자못 판결여하가 주목된다

그동리에 사는 리환덕(李煥德)(三七)이라는사람에게 차퉁을걸고 서울관학에 차고 남타하얏는데 피해자 리환덕은 이로인하야 지난오일 죽엇스므로 구일단천공의가 검시한결과 상해치사의 혐의가 농후하게되야 십일 가해자 김용만을 인치취조중이다

三中井에怪盜

평남 성천군(成川郡)숭령 조기호(曺光浩)(三三)는 십사일오후 네시쯤 부내 본정삼중정(三中井)백화점 귀금속부에가서 그곳 진열장속에 잇든 현금구십여원과 취신에들어 결제와장을 집어가지고 다라나는것을 여점원이보고 소리를 질러서 그곳점원세명이 경관까지 쫓차가 겨우 체포하야 본정서로 인도하엿다 한다

가수로되며 이웃동리와는 정반대로 현재의상황에서처럼 아교로 새로히생활하야지던만 판재를배앗기어 자기들의불리함것을 구도록우려하야 저지운동을 일으키고잇서서 상당히 놀만한현상을보히고잇다

트럭이殺人

십이일오후두시쯤되여 경기도부천군 부내면마분리(富川郡內面馬墳里)산번지오십오번지 리동기(李東基)(三)은 동군소사면심곡리(素砂面深谷里)장에갓다가 술이취하야 도라오는길에 소사면구시리(九桑里)산백일번지압헤서 인천부송현정(松峴町)칠십이번지의 백오십팔호 리경재(李景載)의 운전하는 경인트럭회사소유 경성자동차에 치이어 여빈사의 중상을입엇다

만은練習小切手

십사일저녁 부내 원남정(苑南町)이백사십륙번지 김귀성(金貴 …

新堂町災民에 同情의熱火

各方面에서續續送至

이번신이일밤 신당정화재의리재민 이백사십명중 이백이십여명은 이미 친척의집 또는 친구의집으로 명시의때할곳을 잡엇다는데 이들에게 전하여달라고 십사일정오까지 동대문서에 드러온 의연금은 다음과가다

▲一金千圓 新堂町三三三 延泰潤
▲一金三十圓 新堂町二五一 松山農盛
▲白米五石 生鮮卒(?)
新堂町二二七 光武館
▲주먹밥五升 水標町三六 卓濟近
▲一金三十圓 新堂町二二四 尹車植

그리고 부내집주인 유석근(兪錫根)은 불이나자 집절에도 망을 하고말엇섯는데 십사일새벽 신설정(新設町)공장에서 동대문서원에게 복잡히 발견 취조를 받고잇는중이라고한다

千圓橫領犯

십이일오후네시쯤 부내신설정(新設町)사는박연창(朴淵彰)(二)이가 밀운정(密雲町)백십칠번지 장덕지(張德之)에게의뢰받은 현금천원을 가지고자취를 감추엇다고하야 본정서로부터 부내각서에 바로잡어달라는수배가왓다한다

遊興에맛드린支店長

畢竟은巨金橫領 被害額이萬餘圓以上

수십만원회사의 중역의자리를 이용하여 자기의사복을 채우며 흥은네온의밤거리를 휩쓸고도라다니며 어여쁜계집들의 환심을 사기에 자기회사돈수천금을 소비하여버리고 결국은 화려하든 생활도 일장춘몽이되고 질거워야할봄을 뒤로두고 유치장신세를 지고잇는미남의청년지점장이잇다 주인공은 마장무시(馬場武市)(三一)라는청년으로 일직이 조선에나와 원산(元山)에잇는 광산토목철공재료상(鑛山土木鐵工材料商)소목상회(小木商會)에 취직하여 이태동안일을 보아나려왓스므로 주인의 신임을 바더작년이월에 시내한강통(漢江通)삼일번지 소목상회 경성지점(小木商會京城支店)의 지점장으로 취임하게되엿섯다한다 그런데 처음에는직무에 충실하엿스나 회사원과 동무들의 꾀임을바더 작년팔월이십일이래에 시내 일류요리집과 화류계출입을 하게되어 이때 부러는 이에맛을붓인그는 회사의 지점장의 지위를 리용하여 회사에서 수금한돈은 물론회사의 소절수를 란발하여 현금으로 밧구어서 쓰기시작하여 현재까지 판명된소비금액이 사천이백구십일원오십전이며 그외에 판명되지 안흔것이 만원이상에 달할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마장무시(馬場武市)의 죄상이 탈로되게된 원인은 전기회사의 거래가잇는 시내모은행에서 그전에업든 부도(不渡)수형이 작고나타나니까 의심스러워서 원산(元山)본점에 보고한것으로써 발로된것이라는데 소관용산서에서 탐지하고 십일일오후에 신정(新町)모요정에서 체포하엿다는데 체포한장소 역시 … 소비금액이 상당히만흐리라고하며 목하 고총(古塚)사법주임의손에 엄중취조를 당하고잇다고한다

스포ー츠消息

保健體操

講習會開始

大衆體位向上을 目標로한 中央體育協會主催와 本社後援의 第十一回保健體操講習會第一日은 豫定과가티今十四日午前七時부터 同八時까지 城北高普校講堂에서 擧行한바 參加한會員은 三十歲以上職業戰線에서 勞動하는 壯年靑年들이 四十餘名이엇다 張德珍氏의 指導아래 丁抹基本體操와 國民體育等을 行하야 體育에 對한 認識을 기피하고 第一日을 마치엇는데 講習은 十九日까지 繼續施行하기로되엿다

自轉車候補

廿名을正式發表

日本自轉車聯盟에서는 目下大宮公園內에建設中인 幅四米의五百米『트랙』이 近日中에竣工하게되므로 來廿一日로부터 十日間第一候補選手廿名을 加賀一郞氏指導下에 合宿練習을開始하기로하고 學生自轉車聯盟에서도 때를가치하야 卅名의選手가 合宿練習하기로決定하엿는데 來卅日에는 合宿選手들의千米時間競走와 百五十『키로메ー틀』道路競走를 行할豫定이라한다

張日弘(明大)、張祐植(明大)、金潤奭(明大)、朴忠洪(明大)、廣野(慶大)、金原(慶大)、二瓶(慶大)、松下(慶大)、泉山(明大)、南洞(早大)、出宮(岡山)、高橋(東京)、樋野(大阪)、山岸(島根)、松井(兵庫)、寶田(富山)、石坂(愛知)、菊川(大阪)、齋藤(靜岡)、村山(愛知)

春季러비第五日經過

京商俱22(一一一…〇〇)0鐵道工場

春季러비ー戰第五日의 京城商業俱樂部對鐵道局工場戰은 十三日午後一時半부터 龍山鐵道球場에서 京商俱軍先攻으로 開始된바 結局二十二對零으로 京商俱軍이 大勝하엿다

毘盧峰에積雪三米

朝鮮山岳會와 日本旅行協會支部의主催로『스키ー어ー』들의毘盧峰行을 計畫中이든바 積雪三米에達하는 絶好한『컨디숀』임으로 十九日午後十一時 京城驛發列車로 會員五十名을 募集하야 出發할터이라는바 京城스키俱樂部一行도 이날登程할터이라한다

베아復讐

【紐育十一日發同盟】昨年英國에 遠征하야 敗退한 前世界重量選手權保持者『맥스·베아』와 英國重量選手權保持者『토미·파』의 挑戰試合은 十一日밤『뉴ー욕』의『매디손·스퀘아가덴』에서 十五回戰을擧行한바『베아』는 始終優勢하야 判定勝으로서 復讐하엿다 그리하야『베아』는 이勝利로因하야『맥스·슈메링』對『조ー루이스』의勝者에 挑戰할資格을 엇게되엿다

運動界人事·集會

▲白奉禹君(世界蹴球副將)과 金昌信孃의 結婚式은 十七日 平北碧潼禮拜堂에서擧行
▲崔秉洙君(全日本氷上候補·明大) 十四日入京人事次來社

天氣豫報

概況 七七六미리의 高氣壓은 蒙古로부터 滿鮮에퍼지고 本邦東北地方도 氣壓이 저옥이노프나 그勢力은 不安定하며 太平洋上에는 弱한低氣壓이잇다 滿鮮은 개이고 南岸은 北風이强하다 琉球諸島는 흐리고 本邦도 大體 日氣가 조흐나 處處에 小雨가나린다

豫報 今夜와 明日은개인다

昨日最高	〇度七
同 最低	二度六
今朝最低	一度六
今日正午	三度一

喘息·神經痛과 中風·高血壓

不治아니다

原因부터治療하는 今津博士의새로운療法

(研究中의今津博士)

藥取扱으로有名한今津博士는 專門醫學博士와 此等病의原因을 研究한結果 酒煙草, 梅毒, 淋病, 便秘, 偏食, 胃腸病, 糖尿病, 腎臟炎, 心臟病, 厥冷, 感冒, 心勞, 大食, 大患, 難産等으로 身體를기루는 血液이 濁해서 神經이 胃害되는까닭에 이러나는것으로서 血液의 濁을 업새고 化의 原因을업새고 血壓을 調整해서 血行을 조케하고 神經의 障害를 除去하면 낫게되야 決코 不治가아님을 確信하고

여러가지 實驗을거친結果 淨血劑 服用과『リキシン』又는『イマヅミン』의 併用에依하야 不治의難病을 原因부터조케하고 大端히 기뻐하고잇습니다

中風으로不隨, 語訥하야辛苦하는분
高血壓 動脈硬化로肩凝, 耳鳴, 頭痛, 眩暈, 動悸, 어지럼, 便秘, 不眠, 神經衰弱, 足浮腫, 수전, 麻痺等

今津研究所 大阪市阪急線三國驛北一四五

同所를訪問한患者는 博士의眞實한 研究에依服함과同時에 全國各方面의 治療者로부터보낸 山積한病狀에는 感嘆하엿다

코물나고 막힌데

코물이나고……막히고……냄새나고……마르고……냄새모르는사람은 蓄膿症……肥厚性鼻炎……鼻茸……鼻가다르가는惡性鼻病이發生해잇는證據로 頭相이나빠지고, 頭痛과 頭重으로 苦生하고 記憶力……思考力이 異常할만치 衰해지고 耳, 目, 胃腸에여러가지 餘病이 반드시생긴다

★頭腦, 身體, 人相等이 나빠지는 可恐할鼻病의 識別法★醫學上의正當한手當法은 冊子鼻病解說을 보면 누구나잘안다

鼻病解說은 葉書에新聞名記入해서申込하면 無代로送呈함

申込所 東京市芝區南佐久間町二ノ二 確報堂藥品部

青春男子의懊惱!

性器發育不全가 機能障害

物理療器로復活

남모르게 煩悶하는 性的缺陷者는 世上에 적지안타 그種類도 여러가지가잇서서發育不全으로小兒와가티 短小한것(其他屈曲, 包莖等)도잇는 機能障害에 屬하는陰萎, 早漏, 遺精, 夢精, 性慾缺乏等等이잇다 어느거나 性慾의健全을缺하야 自身은勿論 結婚해도 妻에게滿足을줄수가업서서 男子로서의資格은 全혀업다

뿐만아니라 性的缺陷은 全身에影響해서 病弱으로되여 早老를 招來하고 腦力이 衰退하야 性格까지 變化해서 乃終에는一生을 暗黑하는結果를 가저오다 이에對한療法은 從來信賴할만한것이 거이업서서 患者는다만身勢의 不幸을恨嘆할뿐이엿다 米國某大學敎授ホリック博士에依하야發見된ホリック療法은 이러한患者에게 一大光明을 가저온 것이바 그原理에 基하야發明한

『ホリック療法器』이다 卽 藥療手術에依하지안코物理的으로性器의 發育과機能回復의二重效果를奏하는 新療器로서그作用은 眞空引力으로써 性器에多量의血液을流集시키고 理學的에쓰는作用을 이르켜, 세細胞의蘇活發育을 促進하는 同時에生殖腺內分泌(호르몬)를 旺盛히하야機能障害를 回復시키는 效果가잇다

本器의效用에 對하야서는 이미醫學博士五十餘氏의 推奬하는바이므로 他의僞造物等에 속지말고 卽刻本器를應用하야 簡單하게 秘密히治療하여서 性缺陷의煩惱를一掃하고 明朗快活한身體로되도록勸告하는바이다

ホリック療法器는小型堅牢, 個人의秘密自療에適當한使用簡易의安全擬器로大規模의高價品等과달리價格도겨우五圓送料內地廿五錢 植民地五十五錢이라는廉價이므로益益好評 實行激增, 只今에는海外輸出도盛況을呈하고잇다 더욱詳細한것은『東京市芝區神明町十八東京新療法研究所』로葉書로다만『送れ』라記入해서申込하면『性の新知識』과療器에關한『國入說明書』를無料 別名으로送呈합니다 이것만은꼭보십시요

僞造品許多하니반드시ホリック를

藥種商講義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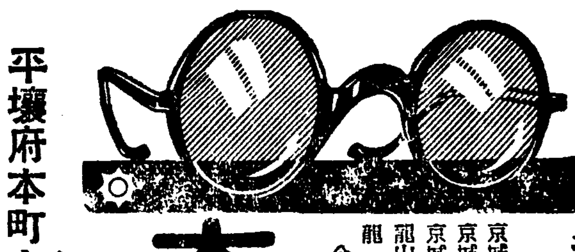
朝鮮藥律 春季受驗明 京城鍾路四丁目五九 毒劇藥改正 朝鮮藥業研究社

麻雀

自家製造 東京淺草藏前 下方屋

俱樂部向·家庭向·牌彫直改色 カタログ送呈

各眼科病院處方 眼鏡責任調製



京城帝國大學御用

京城府民病院眼科 京城醫專病院眼科 京城赤十字病院眼科 龍山鐵道病院眼科 龍山陸軍病院 江頭眼科醫院 金井眼科醫院 荒川眼科醫院 仁川岩永醫院

全鮮各道私立病院眼科御指定

大學堂眼鏡店

京城府本町二丁目 電話本局② 一三七五 振京一一二九 △眼鏡·雙眼鏡カタログ送呈(要三錢)

平壤府本町六番地 大學堂眼鏡店

果樹種苗 農產種子

都賣特價提供(特價表進呈)

朝鮮開城府南山町八一九 興林農園本店 振替京城一五〇三七番

桃屋의果實罐詰 후루ー쓰

品質第一等

白桃、黃桃 枇杷西洋梨 후루ー쓰사라다 후루쓰폰치 密柑 櫻桃 鳳梨

各데파ー트와食料品店에잇소

發賣元 京城 東京桃屋商店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을愛讀하야 特典으로添削試驗問題集等一冊無料進呈합(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振替京城三〇〇番)

漫謡 王서방연서 金貞九

流行歌 (一一一〇一二〇) 南宇心·오하이 李蘭影

오케ー 레코ー드

화로불은속까지 더웁게못하지만 命之母(명지모)는 속까지더웁게하고 부인병에유명합니다

춥다고 화로불만쪼여도 속까지 더워지지안코 몸이떨이다고 옷을두껍게입어도 속까지더워지지안코 주위가풀리지안는것입니다 이와가티 속이떨이고춥고한것은 모도가 몸속에고장이 생긴것이니 아래배로부터 허리와잔등이에서 찬바람이나며쑤시고아프고 그뿐만안이라 냉증으로하야 음부에서는 대하증이흘르므로 혼자서고통을하는부인은 명지모를복용하시기바랍니다 명지모는복용한지三분만지나면 춥고떨리든것이낫고 속에서부터따뜻하여지고 혈기가잘통하야지므로 얼골에화색이돌고 기분이조와지므로 화로불도소용업고 옷을두껍게입을필요도업고 밤에잠도잘자게됩니다 명지모는이와가티 제일조흔효과가잇스니 부인병으로하야 애기를못낫는부인이라도 이약을 쓰시고근치하야 귀여운아드님따님을나으시기바랍니다

부인병에는 수술보다도 약을쓰시기바랍니다

부인병에는 수술을할것인가? 약을쓸것인가? 이것은 여러분께서 병증세를취진작하야 적당한치료를하시도록 간단히말삼드리겟습니다 보통건강한부인의월경은 매월일정한시일에 四五일이나六七일동안이고 월경시에도별로고통이업는것입니다

그러나 월경시에아래배가아프고냉하고두통현기도나고허리와수족이냉하고 여름이나겨울이나감기에걸리기쉽고 가슴이두군거리고 혈색이나뿌고 승미가급해서 울지고 쓸데업는일에 골을잘내고 월경이외에자궁출혈하야 빈혈증이되고 배는고픈데음식은먹기실코 억지로줌먹으면 소화가잘되지안코 얼골에화색이업고 주름살이잡혀서 보기실케될뿐만안이라 월경이일정한시일에 매월나오지안코 분량이만키도하고 적기도하며 계단히적거나 누렁코물갓흔대하증이 흐르는분은 부인병이잡되여서월경이불순하고 대하증이흐르는것이니 여러한부인은 애기를배지못하는것입니다 결혼한지三년 五년 十년이지나도록애기를배지못하는분은 틀림업시부인병이잡되여 월경이불순하고 포태를못하는것이니 여러한부인이병에 약을쓰지안코수술을한다고낫겟습니까? 수술이라는것은비용도만히들고 위험한까닭으로 누구든지함부로할수업는것이고또한 재발하는일이잇스므로 부인병파가리전신에속으로 병독이퍼저서잇는병을어떠케수술을하며 수술을해서곳칠수잇겟습니까 수술을잘못하면 자궁에 흠집을크게하고 병은점점더중하게되며 더한층 고통하는수도잇스니 함부로수술하지말것입니다

부인병이라는것은 배속파자궁속에생겨서 병독이전신에퍼진것이므로 명지모와가튼내복약을복용하고자궁에넛는외용약 오기나구를사용해야 완전히곳칠수잇는것입니다 명지모를복용하면 전신에혈기가잘통하야지므로 얼골에화색이돌고 주름살이펴지고아름다워지며 손발이더워지고확실히 정혈작용을잘하야 체내에병독을 전부죽여버리고 여성의흘르몬을 왕성히하야주므로 불순하던월경이순조롭게되며 대하증이근치됩니다 애기를못낫는부인의 대부분이월경불순파 자궁병대하증으로하야 애기를못배는것이니 자궁병대하증이 근치되고 월경이 순조롭게되면 당연히 포태하야 튼튼하고귀여운애기를 출산하게 될것입니다

약을먹은후 三분이면약효를 알수잇습니다

명지모는 복용한지三분만지나면 재채로 얼골에화색이돌고 기분이조와짐뿐만아니라 이약을복용한지하로이틀지나고 일주일이주일이지나는동안에는 확실히 약효가나타나서 어떠한부인병이던지 곳칠수가잇고 또한 전부터한약을만히쓰든 우리조선부인의 체질에는 제일적당한약이라고 밋습니다 부인병은 고통이심하지안터도 병은뎝허서만성고질이되여잇는수가만흐니 이약을주문하야 복용하고자하는분은 우선일주일동안이면 효과를알수잇지만 한달가량은 복용해보시는것이 조흘줄압니다 만일한달동안을 주문하엿다가 약효가조와서 일주일동안에 병이근치되엿다하드래도 남은약을 다른사람에게주거나필요업다고 버리거나하지말고 한달동안을 꾸준히복용하시면 재발될염려도업고 틀림업시 조흔효과를 어더서 근치하고 귀여운애기를 나실수잇스니 여러분께서명지모를 주문하야복용하고자하는분은 여러분의병세를숨김업시자세히적어서보내시고 약은 본포에서 여러분의병세를 자세히보고 병세에제일적당한약을보내드립니다

부인병에 命之母

藥價	
命之母	오기나구
六日分 一圓	八日分 一圓
十三日分 二圓	十七日分 二圓
二十日分 三圓	廿七日分 三圓
卅五日分 五圓	五十日分 五圓

本舖 合資會社 笹岡省三藥房
東京市京橋區八丁堀三
振替東京五〇五〇番
電話京橋二八八七番

당신은잘 골랏소!

항상 명랑하고패등패등한살결— 평소에 花王石鹼을 쓰신증거입니다

花王石鹼은 보드럽고 敏感한살결에도 刺戟업시 깨끗하게 더러움을 업세고 뒤를 멧그럽게정돈합니다—純粹度 九九·四%世界에자랑할品質입니다

花王石鹼 (화왕비누)

純粹度九九·四%
正價一個十錢

東京·花王石鹼株式會社長瀬商會·大阪

若劇
三月十四日より三日間
日本一の國ツ引
大毎·大朝ニュース
母の曲 前篇
母の曲 後篇
第一回 6·30 7·25 7·45 9·05
第二回 2·30 3·25 3·45 5·05
第三回 11·30 11·50 11·50 1·10

桃花劇場
三月十二日부터十四日까지 (活劇週間)
每日晝夜二回 平日七時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マキノ社特作品 現代活劇 青春五人男 監督 竹丸浩氏 主演 田村那男 水島敏太郎
◇폭스비아社特作品 西部活劇 假面의白騎士
◇폭스비아社超特作 世紀逃亡者

團成社 光電 九五九
三月十三日부터五日間
大毎 ... 其他軍事映畫 及 國產映畫一篇
正午부터短時間二回興行 料金十錢均一
◎夜間上演藝題◎ 金健 作 貞操非常線 全七幕
三月十四日ヨリ上映(廿一日マデ) セルビアン·スウキング·ジヤズ舞踊團

明治座
十一日ヨリ十四日マデ 四日間 階下席十錢均一
バンドマスター アレキサンダー、ペトロー
近代ジヤズ…新舞踊

中央館 永樂町 本三〇一四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〇〇 第二回 三、〇〇 第三回 七、〇〇
日支事變ニュース
青春涙あり
名馬物語
暴れ道場

東洋劇場
朝鮮聲樂研究會大公演
唱劇『토끼타령』四幕
三月十三日부터十七日까지(每日夜間만)
▲特別豫告 次週十八日부터

귀여운어린이를위하야 부모들은각성하자

입학시험이무서워서실진한소년 이사실을엇더케보나

토요일아침 신문사회면에 는중등학교 입학시험날을압두고 너무나 초조하고겁이 나서 그만실진해버린어린이가잇다고 하얏습니다

그소년은 작년에시내의어떤보통학교를 마치고 입학시험에불행히 떠러저서 일년동안을집에서 준비해가지고 금년에 어느고등보통학교에 지원을하얏는데 매일공부하다시피 시험날이 무섭고 초조하야 그만실진해버리엿다고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입학난에대하야 걱정을해오던터이엿스나 지금새삼스러운일도아니며 그러타하야 오날곳해결될것도 아님은어절수업는 사정입니다.

이러한사건이 일러난것을 기회로 우리가정에서 어린이들을기르고 교육시키는데 대하야 한가지산교훈을 가저야겟습니다.

그소년은 건강이나뿌다는것도아니요 완전한데도불구하고 이러케실진까지 하게되는 그경우와 심경이 얼마나 가엽습니까 이것은그 어린이 한사람의 일이아니라 우리조선어린이의 전체의일이 아닐수업습니다 입학시험을 보기위하야 갑갑한집안에 드러박혀서 자나깨나 책에 매여달리고 학교에드러갈것만으매에 잇지안타가 그모양이되엿스니 가엽지안습니까

모든어린이가 그정도의차이는 잇슬지언정 좌우간이 몸을입학시험 때문에 얼마나 정신피로를 허비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이것은 비록사회에 학교가적엇다는것도 한가지 책임이겟지요 마는 부모되시는 분들에게 더큰책임이잇다고십습니다

어린이가 먹고시퍼하며 집기는 음식을 한어시 먹이는것만이 자정으로 알고잇는 우리가정에서는 자식을 사랑하며 할사록 이처럼맹목적입니다

집안에서는 귀중한 어린이가 입학시험준비를 할때 무엇을위하야 학교에 드느냐는것을 미리알어야겟습니다 무엇을위하야 학교엘 너흐라고 애를씁니까 이것은오로지 그어린이의 장래를위해야 하는것에 틀림업겟지요.

어린이의장래를 젼망위하고 사랑할줄 아는부모라면 그처럼 장념의사랑을 하지안흘것입니다 몸이 어떠케되든지 어린이의 정신적고통과부담이 어떠한지도 집작하지안코 그냥학교로 집안에서 공부만 지독히하면 된다는것을 숭상하는한편일년동안 가둑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이만흘 어린이에게 입학에 떠러지면 큰일이라든지 전정이 말이못된다는등 무서운이야기만 들리니까 닭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무서운 시험날이 닥처오므로 진장이 도를넘고 무서워지며 초조하야 마침내 그러한 불상사를 이르킨것이 아닐가생각합니다 더욱 경향에서 모혀드는 지원자들은 대개가 부모나 형님이 따라오는데 시험현장에서도 한시간식시험만 맛치고 나오면 버리떼여키듯이모여서서 잘햇느냐 어떠케햇느냐고 다짐을 밧고잇는광경은 요사히 어느학교운동장에서라도 볼수잇는사실인데 이런종류의부모나형은 얼마나 무지하게 어린이의정신을 위협하며화대하는것인지 모릅니다

잘못되고 잘된것이 궁금하기야 하겟지요마는 그것을강징히묻든 말대답을 어린이는 무서워서 치를떱니다

主婦看護讀本

알는사람간호잘하는법 ③ 女醫 李聖淑

××××병원에서도별것업스니 ××××이만것은아라두십시요××××

◇숨을재는법

호흡쪽 숨쉬는것에도 여러가지성질이 잇습니다. 병에따라서 호흡이 만흔일도잇고 또는 적은일도잇습니다. 또 호흡의 모양이 얏튼일도잇고 기픈일도잇습니다. 그리하여서 체오과맥바과 맛지안는일이 잇습니다. 호흡의상태에 따라 병의조흔와경중을 아는수도 잇습니다.

호흡을 헤아릴때는 가슴에 가볍게 손을얹고 한존에시게를놓고서 가슴에 얹진손이 움직이는것을보고 일분간의 움직이는수를 알수가잇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것이 공기의흡입흡출과 일치하는것이고로 어것이 즉호흡의수입니다.

보통건강한사람은 조용히잇슬때 호흡을하는이 별로히 눈에띄이지안으나 입신한부인들은 횡격막이 우으로밀려올라가서 메의호흡면이 조바지는까게로 소위억개로 숨을쉬게되여서 손을대지안허도 알수가 잇습니다.

대개 호흡이 곤난할때는 호흡수가 만허질뿐아니라 비익호흡(鼻翼呼吸)이라고 하여서 코가벌룩벌룩하면서 숨을쉬게됩니다. 또 『咽頭ㄷ루데리』에 걸리면공기의 통로가좁아저서따라 호흡의운동이 심하여짐으로 숨이몹시괴로워집니다. 중태에빠진 환자로써 숨이 몹시조용하야 숨을쉬는지 안이쉬는지 몰을때는 거울을 코아메(鼻孔)대여 거울이흐리는것을보고 판단할수잇스며 흐은새털가튼것을 코아메대여 그것이 움즉이는것을 보고서 판단할수도잇습니다.

굉장히큰박쥐

날개기리가다섯자

박쥐는 어리분이 잘 아시지입니다 몸뚱아리는 쥐와엇비슷하고 날개가 달려날러다닙니다만 새는아니요 즘생입니다 나제는 바위틈이나 컴컴한집속에 숨엇다가 날이저물기 시작하면날너다닙니다

그런데 조선박쥐는 모두 적으나 열대지방에 잇는 박쥐는 굉장히 큽니다.

푸레로-파스라는 종류의박쥐는 마라이(馬來)섬에 사는 큰 박쥐입니다.

이 박쥐는 멀리 바다를 건너서 날러단이므로 아조무서운 박쥐라고 한답니다.

이박쥐는 마라이섬에서 인도의 북편까지 날러와서 파수원을친약한답니다.

이박쥐는 떼를지워서 날러다니는데 해가지면 날러와서 밤사이에 실파를 도적질 해먹고는 밤이 밝기시작하면 날러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날개힘이펑장하야 바람을 만나서 떠러지거나 비가와서 못나는 법은절대로업습니다.

그러기에 인도(印度)의 농부들은 하룻밤사이에 박쥐떼가날러와서 파일밧을 버러노흠으로 아조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가튼데서는 이러한박쥐가 날러오까 념려가되서 정부에서 크게경계를 하는것입니다.

박쥐가 날러다니는 모양은대체어떠한것인지 이것을 미국마사추세쓰농업연구소기사가 사진을 찍엇습니다.

여기에실린사진이 그것인데제일처음사진은 박쥐가사람의 손에서 날러나가는것입니다 귀를 쭉곳세우고 입을버러서 이스발이 하이얏케 드러난것인데 이것은 아조위험을 느낀때랍니다

그다음것은 손에서 날러가는것이온데 날개를 치는것입니다 셋재사진은 날개를 위로치고 기운차게 내려안즈랴는지 보입니다.

넷재사진은 아조내려안즐준비가 다된것입니다 다섯재는 날개하나만한 비행기 갓습니다 여섯재사진은 그때대기 사진이며 일곱재사진은 알을품내려

은쪽세인데 날개기리가 다섯자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지것을 날개를활짝펴서 자세하게 다음에 날려갈 준비를 하고잇습니다

지위기보것은 벌어보다지서가 작이도타섬의모양인데아주대세 거기가 한개갓습니다. 날개가따을대로 구피고피지못로 사람이 아모리 연구를하여보더라도이와 가튼비행기는만들수업다고합니다

어째서하는건지아십니까

더운물수건질

★ 뜨거울수록조흔게아니에요

미용술(美容術)과 더운물수건은 떠날수업는 인연을 가진듯이되엿스나 솟습니다 그러나 이더운물수건은(성작은중기에저수건) 피부에 조타고 하는이도 잇스며 낫부다는이도잇는데 대체 어느편말이올흔말일지 자세히 아라보아야겟습니다

더운물수건은 대체 무엇때문에가 하는것부터 생각해시옵다 그것이 피부에 적당한 열도를주면 피하조직(皮下組織)에 잇는 모세관(毛細管)이 느러나고 따라서혈액순환이잘되며 시진대사활왕성하하야 산화작용이나 자정작용(自淨作用)을 활발하게하므로 자연피부가 연해저서 주름살 더진괴부도 연해저서 주름살도 드러나지안케하는 효과를 가젓습니다.

더욱이때에는 발한작용(發汗作用)이왕성하야지므로 털구녕이 버러지게됩니다

그때에 유성크림을 발너서 적당히 맛사-지를하면 털구녕속의 파잉(過剩)된지방이나 때가 크림과함께 버서집니다

이러한 리유로 더운수건을 쓰게되는데 이것은 원래지나에서 전해온풍속입니다

몬지와 바람이 거세인 대륙에서는 하로에도 몇번식얼골을 씻지안흐면 안되므로이것을간단히 씻스라는데서 더운수건이 소용되엿습니다 더이중국이 지금은 동양에서는어듸나 다쓰는데 로리칩은 말할것도 업고 자집가튼데서도 이것을 쓰도록 되여잇스며 조흡니다.

나 너무뜨거운것은 피부와피하조직의 열도를 조절할수업스므로 도리혀 발한작용을 하게하며 피부표면도 너무건조되여버리므로 주름살을 더만케하는 반대작용을 나타내기쉽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뜨거운수건은 미용상해는 잇슬지언정 리는 업습니다.

그러므로 얼골을 씻치는데 운물수건은 반드시 체온보다 조곰더운정도의것을 한두번써서 효과히 목욕하고 나오기 분을 바르는정도가 효과이이며 조흡니다.

겨우내입든양복 손질해서두는법

학창일기

겨울양복도 인제는 퇴퇴하게 꾸겨지고 몬지들이 끼엿습니다.

꼿버서버리고 봄양복을 입게도 되엿스니 겨울양복은잘 손질하야 간수해두십시다. 겨울양복의 때빼는법을 이야기하겟습니다.

위선 소매 깃 가튼데를휘발유로 때되 빠지지안커든오섭배의물에탄 암모니아와알콜을 혼합한물을 탈지면에 적시여서 닥거보십시요 그래서 잘마른뒤에 몬지를털고 다시 솔질을하야 『푸레스』합니다. 『푸레스』는양복옷도리를 떠러지고 무명헌겁을 더운물 튀며서 그우에 다가 뜨거운 다리미를 놀리지말고 슬적슬적합니다

이러케하면 양복이 모다느러지고 줄어지기를 마음대로 하는데 적당한 본모양대로정도시키여서 다시 다리질을하야 솟질하면 몬지와 때가 말숙하게 빠질뿐더러 모양도 조화집니다.

그다음에는 바지인데 바지푸레스는 그탑 제일도처럼무르파자욱이 우에오도록 펴다음 무르파자욱에다가 먼저푸레스하면 느러난것이 줄어들게됩니다.

이러케하야 전체의 푸레스는 못조고리의 그와 마찬가지로되 바지줄을 잡을때는 틀재번안단추이잇는데서 부터줄이 시작되여야합니다.

주의할것은 양복그대로두고다리미질을하면 냄새가 고약하고 양복지가 느러버립니다 그러므로 다리미질은반드시 축축하게적근 헌겁을깔고하되 헌겁이다마르기전에 떼여야하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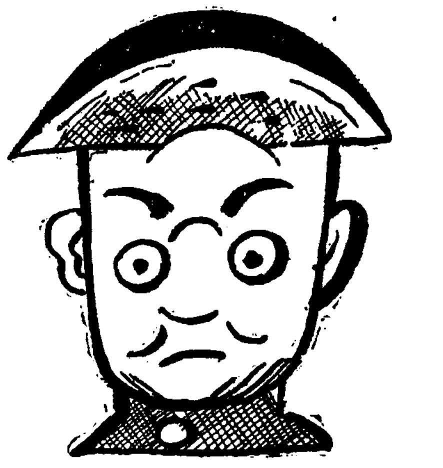
궁둥이자욱가튼데 번질번질 해진데는 아조 물에축축한 헌겁을대이고 다리미로 여러번 찍듯이눌르면 낫습니다

지차리우

이상한그림

장군인줄 알엇더니 그림을 거꾸루보니 지나병정이 수박을 먹고잇습니다.

(글과그림 오정군)



당주맥는게에 삐-루맛이 더쓸께외다

한병에삼전식더오를모양

전시체제아래 마지하는봄-여기에는 물가가 빗싸서 개인의가정경제에 여간한여유잇갓지못할 형편이니 쌀이야기는 물론도 술이야기를 하기가대단히거북하고 첨모르는 어런아이수자갓기는하나 그러타해서 허밋치 축축해지면 술생각이나고 꼿치피면 맥주며병쯤은 깨트려야 봄다운봄맛을수잇는 술군들에게 주세가 빗싸졋스니 딱한일입니다. 사월중순부터 맥주가 빗싸집니다 맥주회사의 시청에은 한병에 삼전식올려야 하겟다고하나 당국에서는 될수잇는대로 그폭을적게하야 이전이나 흑은그반으로 갈을해됨이향이리고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한병에 삼전식 올리고야 말형세에잇스니 맥주컵을 입에대일때 비로소 인생의질거움을 맛볼수잇다는 맥주당에게 적지안흔 공황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맥주씨-즌이라고 기다리던차에 이것은 또한 예이푸랍톨 아닌 우울한 사실입니다.

요번가격인상은 맥주 조석세(麥酒造石稅)의인상이 원천됨이다 그다음이 원료능귀라는것이 맥주회사측에서말하는 리유입니다.

그러데 근래에는 맥주의 수용이 작고느러가고잇서서 네타(打)든상자가 약칠백만상자 병으로는 삼억삼천륙백만병이 일본전국에서 녹아집니다 여기에다가 한병삼전식 더주게된다면 전국민이천만원이상을 맥주회사에 더지불해주게되므로 이것은 작년통에 올리게되엿스니 이것이 끼치는 영향은 의외에 섬각 합니다.

실지로 맥주당에게는 삼전만의 폭이 아니고 아무러케나 삼전이상의 영향은 면치 못할것입니다 그것은 술먹는사람 어듸누구가 또박또박 회사에서 직접 바더 먹는 사람이 잇습니까 술집에 가서 먹어야 할테니 거기서는 삼전의 가격인상을 오전이나십전으로 올릴것입니다.

어듸물가가든지 오십전하나만 던지면 맥주한병을 먹을수잇던시절은 지나간것입니다

이러케되면 맥주맛도 점점 말오줌처럼씨그럴 맥주당의우울한봄이리고나 할가요

中篇小說 女人命令 【68】

李善熙 作 崔根培 畵

結婚 (二〇)

그여편네가 서울와서 잇슨지도 벌서 달새처다 그여편네는 온몸을 저냉으로 떤떤어 갓다두엇는데 그러케 떤떤에잇스니 저도편하고 이쪽에서도 그쪽을 안보고 피차조화엿다.

그동안 숙채네외는 오늘 데일하며 조비실숙채는 『이혼』문제를 아조이저버린드시 다시는 끄내지안햇다.

이 이혼문제는 금세 될듯 될뜻하다가 다 벌어지고 할숙을 내쉬고 불량이면 고무줄탄사이 늘엇다가 다시 노흔것처럼 어는새 제자리로 올너 돌고말엇다 그리하야 진의사와 숙채는 눈치만 당나귀 엉치만 둘드시 그저 여편이고 그이혼문제를 앗스나 마지막엔 제자리에 물아와 선것밧게 아모것도업섯다.

그런데 이약혼 반대로 그여편네는 려관구석에 잇슬것일자가 느러젓다.

서울온지에 서울구경이나 한다고 요즘 매일가다 나도라다닌다. 다니는데는 혼저 다닌수업고 그러다고 어느날편이나쏙채가 따러나설수도업서 할일업시 숙채집 식모가 다리고 다니기로햇다.

첫번엔 회신상회로 가보니를것도만코 사구시픈것도 만허 도시 녁을일코 식모뒤를 쫏처다니고 그담엔 상월오복점 진고개 서울장안이좁다하고 안댕긴데가 업섯다.

오늘은 또 동물원 구경을갓는데 시골서 가지온 손수건에다 장은 지갑을 팍싸쥐고 그냥 세월업시 도라다녓다.

『구경이 조홍지요?』

『그럼 전에 이야기는 드러지만

그는 원숭이도 구경하고 나라납 안즈섯던 자리에도 가보고 두루 바람을 쏘이니 속이 시원햇다

엄마쯤 도라다니다가 그안에 매점에서『가스데라』도 사먹어보고『미루꾸』도 사먹고 경심때쯤해서는 식당에서 장국밥도 한그릇식 사먹엇다 나종에 류리곽부에 떠러노흔 랭수를들어 양주잔까지하고는 거기를나와다시집으로 십년이되도 이런일이업든니 요집은 그래도 남편겨래와서 남편의 밥을먹고 마음편고 구경이나 다니고하니인제야 세상에 낫든 보람이잇는것갓햇다.

다저물게야 려편으로 들어오면 해다 바치는 상을 밧고그대로 두다리를 뻣고 들어누어 그날 보고드러온것이나 되푸리하고 잇슬뿐이면 어떠케 편하고 조흔지 모르겟다.

그래도 그녀편네는 치마를 버서걸고 맨 단속곳 바람으로두엿거나 그리지는 못햇다. 행여 자기 남편이 지내는 길에라도 들리게되면 그런모양이 업겟기에 옷을 끌는지 못하고잇다.

『설마 깨지에와 혼저잇스니 한번이라도 들여다 보겟지그』

려나 다새를 잇는동안 한번도 남편은 오질안엇고 꿍연히 그여편네가 바게서 심부름하는 애들보자욱 소리라도 나면 옷들 옷을 불리서 일어나군햇다

그러나 정의사는 아직도 락망하지안는다. 다만 몹씨 뭐바질하고난 사람이 잠시 숨을틀려가지고 또 두주먹을 불근쥐고 내다를 모양이다.

그러면 숙채도 그남편과가티 아직도 내다를 용기가 엇느냐하면 그것업다.

숙채는 마치 중병치르고난사람이 음식에 구미를 일뜻이이 『이혼』문제에 대해서 구미를싹 일헛다.

『그들 둘이 정말 부부다』

이혼을 하겟다고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며한든그때와는 딴판으로 지금은 이러한 생각이가슴에 드는데 이것이 숙채가지고마는 그첫장면인것이다.

그리고 이생각은 마치 구즌비 주적이는저녁 어데 갈데업시 행길에 섯는 사람가튼 려막과 두려움을 주엇다.

『그들 두사람이 정말부부다』

숙채는 이 맷술동안 동이말이엇다 산다. 그의 하이안 귀밋께가 몹씨 창백해젓슬뿐으로 그는 바즈런이 바느질에 골몰해잇섯다.

하로종일 바느질에 안편올리리고나면 이마스전에 땀이 송송 내맷고 눈아과 아물거렷다 사실 바느질에 마음이잇는게아니라 떠면에는 바느질을 붓들고안저야 이우러 저우러 허크러진 명주실가튼 생각을 푸는것이다.

胃腸病이輕快

再次會社에勤務

(東京) 佐佐木猛

나는 學校時代부터 胃腸이弱하야 조곰만 過食을해도가슴이쓰리고 吐氣가잇고해서 여러가지 胃腸藥도服用햇스나 恢復의曙光이보이지안코一時는 아주어절줄을 몰랏섯습니다

그런가운대 學校도卒業하고昨年부터 어떤會社의事務員으로採用되엿사오나 運動不足과 精神的疲勞가 激甚하야 體重은 減하고食慾은 不進하야 날마다 衰弱해가는것을 어찌道理가업서서前途를 悲觀해서습니다 會社에도 休暇를어더 療養키爲하야 시골로가려든次에 新聞紙上에서『錠劑わかもと』의效果와 體驗談을 읽엇습니다 近處藥局에서 사가지고 每食後먹은結果 食慾이업든것이 차차나아지고 顔色은 漸漸조아저서 三回의 食事는勿論 間食까지생각이 잇게되엿습니다

食慾이 增進됨에따라 體重도 漸次늘고 再次元氣잇게會社에 出勤하게되야 大端히기뻐하고 잇습니다

不眠症에催眠劑의濫用은危險

밤에 흥잔다는것은 肉體的苦痛보다도 그實際보다도過大케생각하야 精神的으로打擊을바듬으로 그苦痛을버서날여고催眠劑를 쓰게되는것입니다

催眠劑도혹시하로나잇흘밧겐쓰는것은 아모害도업지마는 이것을連用하고잇스면 그成分이體內에 蓄積해서 漸漸

効力이薄弱해지므

로 次第로量을더하게되고 中毒症狀을이르켜서 不眠以上으로可恐할 腦障害와 消化器 循環器에여러가지 障害를 이르키게됩니다

不眠症은 그것이 獨立的으로이러나는것이안이고 大槪어떤原因이 되는 障碍가 잇서서 그結果나타나는것인故로 거저催眠劑를 써서 一時의 睡眠을 엇는것보다 그原因인 障碍를 除去하는것이 緊要합니다

精神的煩悶이 잇는이는 그것을 解決하는것이 先決要件이지마는 그것도 不眠의 害를 너무 過大히 생각하는傾向이잇는故로 하로나이틀 밤쯤 잠을못잣지라도 普通으로지내면 自然히 잠들자게됩니다

肉體的으로보아

睡眠과가장기픈關係가잇는것은 胃腸障害 特히消化不良 常習便秘입니다

이경우의 消化不良이란는것은 胃酸過多 胃擴張等도一括해서 말하는것으로서 胃中에食物의 停滯感이睡眠을障害하는것이며 또常習便秘는 下腹部의不快感과大腸內의異常醱酵로 有毒物이大腦를刺戟하는까닭입니다

如斯한여러가지原因으로오는 不眠症에對해서 近來一種의綜合原因療法으로서 綜合에-뷔菌劑의 內服이實用되고잇습니다 이藥의 作用은非常히複雜하지마는中心이 되여잇는것은 所謂細胞賦活作用으로서 活性菌이 體內에그組織의 細胞를 鼓舞更生케하고 特히 消化機能의强化와 腸內淸潔의效果가 顯著한故로 不眠의原因이되는 消化不良과 便秘를업샐수가잇는것입니다 即『錠劑わかもと』에는 優秀한酵素의 榮養素인 누구레인, 레시틴, 비타민B、C가 가장豊富히 含有해잇서서頭腦의過勞를 防止하고有毒物質을 分解해서 神經의障碍를업새고 自然의 安眠을 齎來하는것입니다

이『錠劑わかもと』는東京芝公園大門內際 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三百錠入 千錠入의 二種이一日分져우五, 大錢 (小兒에는二,三錢)의廉價로發賣하고잇습니다

喫煙家는注意!

담배피는이의七八割까지가 이런病에걸립니다

煙草가嗜好品으로서 처음으로日本人이 피우게된것은 只今으로부터 大凡三百三四十年前 即慶長때부터라고합니다

當代記에依하면

이때(慶長十二年二月)담배라는것이잇섯다만히들피워젓스나 後에는禁令가낫다고 피우지안는이가잇섯다 이것은南蠻에서渡來햇다고함

이라고하는一節을볼수가잇습니다 그當時부터現代에이르기까지담배는嗜好品으로서 愛好되고잇는것인데 그反面

煙草의害毒에

對해서도 각금 論議가되여왓습니다 그中에도江戶初期에는幕府로부터禁煙令이잇섯고林羅山이라는有名한學者가 著作한冊에도 『損이잇슬지언정益이업고 弊가되고費用을만히쓰게된다』이라고하고또 『근로려야근로할수업는因循이지금까지잇다』고歎하고잇습니다

現代는이害惡이 니코친이라는 毒한成分때문이라는것은 一般의常識이되여잇는대 이 니코친은한번에〇、〇六瓦만吸入하면 普通사람은그자리에서너너진다고할만한毒性이强한것으로서 普通數枚一本에는〇、〇〇六、맛도에는〇、〇〇八瓦의 니코친이含有해잇는故로 이가운데서가령半分이煙氣에混合되야吸收되여진다고할지라도 그習慣을大概想像할수가잇겟지요

예전부터 喫煙家에는胃腸病者가 만타는것도 그까닭으로서 그中에도죽이쓰리다던지

신트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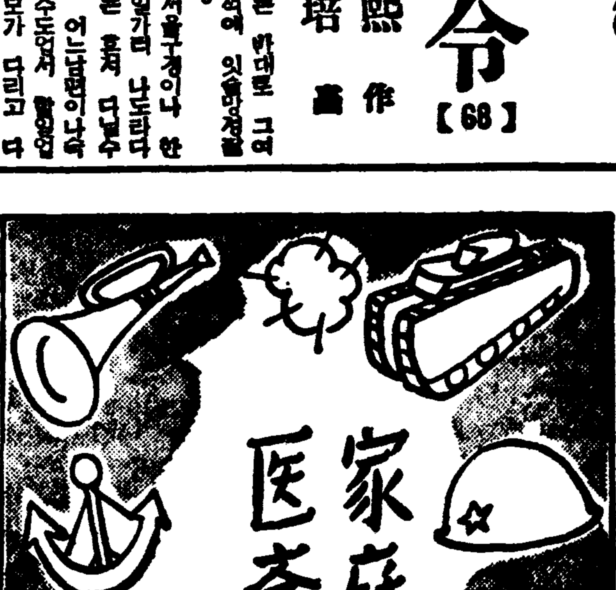
나다던지하는 胃酸過多를訴하는이는 喫煙家의七八割에나達한것이라고보고잇습니다

이것은니코친이 唾液과함께胃內에드러가서 胃의粘膜을刺戟하는까닭에 胃液의分泌이異常히昂進하는까닭으로서 이것이習慣이되면 胃酸過多로부터 무서운胃潰瘍과胃癌을 誘發케하는危險을 招來햇습니다 도이것이腸의機能을 鈍하게하야 常習便秘를이르키든지 胃腸으로부터 血液中에吸收되여서循環器와 神經系統을害하하는等 煙草의害는 全身에미치게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喫煙家로서이러한 症狀이잇는는 斷然禁煙하는것이조흔대 이것이容易케안된다고하면 胃腸에比較的害가적은食後에少量을먹는 程度로制限하고 아울러 胃腸의 機能을 서病의頭腦를防止함과한께 綜合에-뷔菌劑『錠劑わかもと』를 와가티 胃腸의機能을

根本的으로整調하는

藥劑를服用하는것이有効합니다 이藥은 十數種의活性酵素와오르몬性物質及人體에 必須한榮養素를綜合網羅하고잇지마는 그中心的活動은『細胞原形質賦活作用』이라고해서 酵調가되여잇는胃腸粘膜의 細胞에作用하야 이것을 健全케만드는外에 全身의榮養을 充實케해서衰弱한諸臟器의機能을 活潑케하는點에잇습니다 그러므로喫煙의害에依하야 胃酸過多와 食慾不振으로 辛苦하는者도『錠劑わかもと』을服用하면 胃酸이 正常해지고 胃液의分泌도正常케되어오는結果 속쓰림과胃痛, 便秘、食慾不振等도 自然히나아갑니다



食慾不振하는분

食慾不振은結核作用으로도 만히잇습니다마는 그最大原因은一般的으로는 胃腸이 衰弱하야 胃腸의 機能이 衰弱한故로 食慾中樞도 刺戟되지안는故 單純한 消化劑等으로는 効果를 어들수업습니다

그러치만은 『錠劑わかもと』 德國의 醫學者로아스博士로하여금 『食慾素라고할만하다』 라고 稱讚시킨만큼强한 食慾增進作用이잇고 其他消化를노피고 胃腸을 機能的으로 强케하고 結核菌의毒素를 解消하는 成分도 含有하고잇는故로 結核患者의食慾不振에잇서서 効果가만습니다

文化的發掘

歐洲에紹介된朝鮮 ⑾

湖岩

하멜의 漂流記보다 約五六十年을 앞서서 伊太利人프란시스코·칼레티(Francesco Carletti)란이가 朝鮮에 關한 事情을 歐洲에 紹介하엿다한다. 그는 우리 宣祖年間에 [illegible]을 遊歷하다가 [illegible]에서 朝鮮事情을 얼마쯤 어더들엇고 또 [illegible]을 떠날때 「고와」에까지 朝鮮靑年一人을 더리고 왓는데 그가 그 靑年을 取得한것은 [illegible]이엇다. 그 靑年은 後日 다시 羅馬로 더리고가서 거기서 안토니오·코레아(Antonio Corea)라고 命名하엿다한다.

「안토니오」의 本姓名이 무엇인지는 알수업스되 朝鮮人으로서 西洋에 歸化한 最初의 人物일것이니 西洋人으로서 朝鮮에 歸化한 最初인 朴燕과 對照하야 볼때 비록 斷片的 事實이나마 興味가 津津함을 깨닷겟다. 다만 「칼레티」의 朝鮮事情의 紹介가 어떤程度로 되엇스며 어떤內容으로 되엿는지 그는 오늘날 알어서 推斷할길이 업다. 이는 後日 博雅君子의 考證을 기다리는 바이어니와 아마도 모르면모르되 目睹體驗한 하멜의 漂流記에 比하면 칼레티의 朝鮮紹介는 耳食傳聞의 譏를 免하지 못햇슬것이다.

西洋人의 朝鮮紹介에 關해서는 하멜의 漂流記나 칼레티보다 훨씬 앞서서 西曆十四世紀에 書籍에 나타난 코리아(Corea)라는 記錄이 오랜것으로 著名하다. 東洋航行의 開拓者인 葡萄牙人이 東方航海로 朝鮮에 對하야 紹介의 勞를 取햇슴은 그럴듯이 首肯된다. 十三世紀末에 東洋으로부터 「베네지아」에 歸國하게 된 「마르코·폴로」가 적은 東方見聞錄에는 그때 支那와 日本의 事情을 詳述하면서도 무삼까닭인지 高麗에 關한 記事는 一言半辭도 업다. 近年 [illegible]로 [illegible]

[illegible]에 엿어나 무슨말이 잇는가하고 아무리 [illegible]해도 高麗記事는 도모지 보이지 안는다. 「마르코·폴로」는 元世祖 忽必烈에게 벼슬하야 支那에 거이 二十年間이나 滯在하던 人物이라 當時 元의 大都에 住留하는 高麗人은 三四萬의 多數에 達하엿는데 「마르코·폴로」가 高麗人을 맛나지 못햇슬리가 업다. 或은 大都街上에서 高麗人을 맛나서도 蒙古人과 따로 구별하지 안햇슬런지 모른다. 그러치 안으면 어찌 이 [illegible]에 關한 이야기가 조금도 업는가.

[illegible]로 엇게는가. 英人 奇一氏는 그 著 朝鮮文化史의 一節에 이를 解하야 말하되 朝鮮과 西洋人의 接觸은 十七世紀初葉으로부터 비롯하엿스나 그實은 이보다 四百年前에 「마르코·폴로」가 칸발크(Kambalu)市의 大路上에서 高麗人들이 往來하고잇는것을 반드시 보앗슬터인데 高麗에 關한 그의 이야기는 조금도 업다. 奇一氏는 이처럼 東方見聞錄에 朝鮮記事의 빠진것을 매우 疑心스러히 생각햇다.

學藝

詩壇展望 (5)

詩와措辭의問題

崔載瑞

쉘-리는 詩를 定義하야 『最適한 場所에 最適한 말』이라고햇다. 詩의 本質과는 엄토당토안흔 말갓기도하나 詩의 秘術을 適切히 表現한 말이다. 웨그러냐하면 詩의 모든 問題는 結局 措辭의 問題로 돌릴수잇스니까. 이러케 詩의 問題를 措辭의 問題로 바꾸어노코 생각한다는데 對하야선 詩人이나 讀者側에서 적지안흔 不滿이 잇슬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措辭의 問題를 重大視하지안흐면 아니될 處地에 잇슴을 各自는 自覺해야겟다. 事實은 措辭의 問題가 詩批評의 알파이고 오메가이지만.

詩와 散文을 리듬에 依하야 區別할수잇느냐 업느냐하는것은 歐羅巴에선 大問題이지만 우리에게 잇서선 그다지 重大한 問題가 아니다. 原來로 우리말엔 定形律이 업고 따라서 文章의 리듬도 어느 限定된 範圍外에서 問題가 되지안키때문이다(勿論 나는 朝鮮말의 악센트를 主張하고 또 그것을 定形化하려고 努力하는 이들에게 反對하려는것은 아니다). 그러타고 詩와 散文을 內容에 依하야 區別할수도 업는일이고 印刷形式에 依하야 區別하는것은 말도 안되는일이다. 이리하야 우리는 結局 措辭에서 그 區別을 지을수밧게 업다.

大端히 漠然한듯하나 詩的 感觸이 잇는 사람이 取扱한다면 措辭는 能히 그 詩가 眞正한 詩인지 散文의 變形인지를 判斷할수잇슬것이다.

그러면 散文의 措辭法과 詩의 措辭法새에 判然한 區別이 잇느냐하면 勿論 그런것은 업다. 그 區別은 차라리 態度와 心理의 問題이니만큼 大端히 데리케트하다. 그러타고 만일 그 通用的 意味에서만 쓰는 散文과 그 散文的 意味를 돌코드러가서 그 眞意를 發見해낼수잇는 詩와새에 措辭的 區別이 업다고하는것은 抑說이다. 우리는 우선 言語의 두가지 性質을 區別할 必要가잇다.

言語는 貨幣와가티 流通한다. 一定한 範圍內에선 아무런 障害가 업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轉轉한다. 그것은 貨幣에 額面價格이 잇는거와 마찬가지로 言語에 因襲的 意味가 잇기때문이다. 言語의 因襲的 意味란 한 社會안에서 約束되고 辭典에서 成文化한 意味이다. 우리는 이 額面的 意味를 適當히 理解하야 日常用務를 處辨한다. 그리고 우리는 平和롭다. 文明이 爛熟하야 極度로 便利化하면 自壞作用이 이러나는거와 마찬가지로 言語가 너무 因襲化하야 極度로 便化하면 言語의 平和狀態를 깨트리랴는 稀罕이 생긴다. 言語의 因襲化로 말미아마 用務處辨의 簡便化를 享樂하는 反面에 우리는 우리의 眞實을 傳하는 措辭가 업고 남의 眞實을 알어볼수가 업다. 그것은 貨幣만 주고받고 交涉되는 社會에 아무런 眞實性이 업는거와 一般이다.

애초에 말은 물건을 指示하엿다. 그러나 社會生活이 多端하야지고 個人의 思索이 複雜化함을 따라 말의 原始的 型態는 修正을 밧게되엿다. 이리하야 말의 具體的 意味에서 抽象的 意味는 抽出되엿다. 이 推移는 詩로부터 哲學에로의 發展이 表示한다. 그러나 압서도 말한바와가티 말이 너무 抽象化하면 그 眞實性을 어찌 回復할까? 말의

額面意味—卽 抽象的 意味를 一旦 解體하고 그속에서 새로운 이메지를 집어내는수밧게 업다. 이點에서 말에 對한 散文作家와 詩人의 態度는 判然히 달러진다. 散文作家는 말을 그 通俗的 意味에서 構成한다면 詩人은 말을 하나하나 創造할 必要가잇다. 詩人이 말을 創造한다는것은 造語를 意味하는것은 아니다. 普通말을 가지고 張萬榮氏와 가티 새로운 이메지를 맨드러가 또는 鄭芝溶氏와 가티 새로운 씨미리(直喩)나 메타포(隱喩)를 맨드러내면된다. 鄭氏의 作品엔 씨미리나 메타포로서 嶄新한것이 수두룩하다. 氏는 比喩에 잇서서 決코 特別한 말을 쓰지안는다. 日常生活에서 우리가 늘 보고 만지는 물건을 서로 結合하야 한개의 比喩를 맨든다. 다만 그 結合에 잇서선 不一致의 調和가 奇想天外하야 嶄新할뿐만아니라 그곳에 嚴密한 論理가 잇서서 讀者에게 眞實性을 肯定시킨다.

이러한 點으로볼때 『無名草』나 『바다의 鄕愁』에 不滿을 表明치 안흘수업다. 一一이 材料를 드러 紙面도업고하야 다른 機會로 미룬다. (끗)

趙碧岩詩集「鄕愁」出版會 지난十二日於文友會堂

麗末史話 (3)

麗·李交替의 歷史的意義

崔益翰

우리는 時代와 個人과의 關係를 그것의 交互的 生産過程에서 理解하려는 者이다. 우에 말한바와 가티 麗의 崔瑩과 李朝의 鄭道傳은 그들의 時代에 果然 어떠한가. 前者는 英雄的 武人的이라면 後者는 奸雄的 巧猾한 文人的이다. 한거름 나아가서 그

時代

의 經濟的 基礎的 觀點에서 이것을 區分해 말할진댄 前者를 粗放的 經濟組織에 依據한 封建階級의 代表라하면 後者는 密集的이고 纖細化한 經濟組織을 促成하는 封建階級의 代表라고도 할수잇지안흘가.

『功蓋一國、罪滿天下』는 尹紹宗의 崔瑩에 對한 名評이라고하나 要컨대 當時 李朝 開明派의 阿世的 曲論에 不過한것이다. 罪滿天下는 아마 崔瑩의 征明主張을 이른것이니 李太祖의 事大主義와 다르다는것을 意味한것인즉 그러면 崔瑩의 正反對인 李太祖를 가르처 功滿天下라고하면 適評이 될것인가. 이것이 適評이 아니라면 저것만이 適評이 될 아무런 論理的 根據가 업는것이다. 그러나 저러한 曲論이 一種 聲望으로서 李朝의 理性界를 支配하야온것만큼 그것으로서 李朝五百年의 歷史的 特徵을 看破하기에 가되는것이다.

材料

春亭卞季良은 李朝 事大派의 文臣임에도 不拘하고 崔瑩을 追慕해가로대

蕭颯光陰對短星、
擧語街童誦姓名、
一片壯心應不死、
千秋永與太山橫。

이라고하얏스니 千秋에 죽지안코 太山으로더부러 기리빗긴 壯心이란 무엇이냐하면 이것이 두말할것도업시 明의 橫暴한 侵略을 憤慨하야 麗祖以來 宿願인 句麗·渤海舊土의 回復을 꾀하는 同時에 麗人先族의 武勇開拓의 精神을 振作하려는 崔都統의 歷史的 決心을 가르친것이니 저 紹宗輩의 曲論奸辭에 比하면 實로 天壤의 差가 잇지안는가.

그리고 道傳에 對한 正評은 順庵에 依하면 『亡國은 비로소 詐를 行하고 몹시치하야 써 이를 낙시질하며

世運

을 默揣하야 化權을 가만히 옮기는 者는 대개 小人의 雄이어서 얼른 그것을 看破하기 어려운것이다. 道傳은 儒術로서 進用되야 當世에 有名하얏스니 恭讓王의 道傳에 對한 功臣策封敎書中에 學通天人。識貫古今。倡濂洛之道。排異端之說。革去弊政、修明禮樂、眞王佐之才也라는것이 즉 이때에 잇서서 대개 누가 道傳을 賢하다 아니햇스며 貪國貪利의 밤이 潛在한줄을 어찌 아랏스랴. 아! 孔子의 이르신바 惡紫之奪朱。惡鄭聲之亂雅樂이 道傳을 두고 말한것인저』

이제 筆者가 이러한 道傳에 對한 酷評을 잡아 記行하는 것은 그 本意가 무엇이냐하면 麗朝文化와는 그 時代가 다른 李朝文化를 研究하는데 重要한 參照가 되는것뿐아니라 本史의 問題인 麗末史厄의 理由를 찾는데 잇서서도 重要한

說明

이 되는것이다.

그러면 이르바 史厄이란 무엇인가. 一切記錄의 文獻이 湮滅、殘缺、또는 變幻되야 그 時代와 그 社會의 文明과 文化에 對한 眞正한 性質과 事實을 後人에게 보여주지 못한것이니 自然的 作用 即 天變、地理、洪水、大火 等에 依한 史厄은 오히려 人爲의 干涉을 밧지아니한것만큼 單純히 有가 無로 化하야 그 자취가 깨끗하지마는 人爲의 史厄 卽 焚書、僞作、杜撰、删削、加筆、曲筆 等은 有無虛實이 그 本然的 狀態를 일허버린 同時에 是非善惡이 서로 錯亂되야 世道人心에 對한 暗黑과 文化發展에 對한 障碍가 實로 自然史厄과는 同日而語할바가 아니다. 平壤古書가 唐의 李勣으로 完山史庫가 甄萱의 敗로 因하야 烏有에 도라가다는것은 三韓文化의 終天的 痛恨이 되지안흘수업거니와 鄭仲夫의 禍는 叅烈하나 武人의 文人에 對한 一時的 洩憤과 痛歎不已한바이지만 이것은 麗朝人士의 坑儒焚書 以上으로 안흘가

반닷이 史厄인만큼 그 惡性을 대중업시 表現하얏스나 그 細密한 文奸과 陰險한 毒害를 特徵으로한 麗末史厄에 比하면 오히려 그 方法이 粗率하야 經緯의 邪曲을 徹底히 破壞치 못하얏스니 麗末史厄은 實로 鬼神의 筆法인 同時에 朱紫、雅鄭이 全然 混淆된만한 文化的 危機엿다.

「麗史所予、毋末可信。末年事跡尤乖謬。此輩以局於禑昌、然傳信之書、豈容薦沒其實而誣僞之也。如立昌、見疑、逐禑初元已、作事、爲大乘案、元臣故老、顚顚流落、卒移其國。彼道傳也、琺也、紹宗也、浚也、其無天哉、爲麗史者、鄭麟趾也、麟趾、爲世宗文宗兩朝所眷注、致位宰相而卒爲弑君之賊」 이것은 申象村의 말로부터 가져온것이다. 麗末史에 對한 批評家로서는 大膽하고 辛辣深酷하기가 李朝數百年동안 象村이 그 第一位를 占領하야다 할수잇지 안흘가.

文學同人誌 「르·파피에」發刊

文學同好者 몃몃사람이 모혀서 同人雜誌 『르·파피에』를 내기로되엿다는바 그 同人은 劉顯玉 尹泰雄 金桂天 李元 等氏라고한다.

学芸消息

行脚短信

無等山遊記 (1)

證心寺의三國寶

李殷相

本社主催 朝鮮鄕土文化調査事業의 第一步로 全南의 首府인 光州에 到着되기는 三月六日이엇습니다. 有志數氏를 歷訪하고 旅舍의 一夜를 지난 七日, 다시 故老數氏와 相議한 結果, 府內의 遺蹟調査는 뒤로밀고 먼저 無等山을 踏破키로 하엿습니다.

七日午後, 山下의 證心寺까지 自動車로 달려 山門에 이르니 때는 夕陽이엇습니다. 各地의 文化를 調査하는동안 오늘은 어디서 무엇하는가하는 궁금이나 풀어드리기 爲하야 글월이 적어보낼 나의 報告인 行脚短信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第一信은 山中에서 記錄한것이나 元曉寺라는 곳에서 大雪을 만나 一日間이나 幽閉를 當하고 潭陽郡境內의 山村數處를 便宜上 미리 調査하느라고 郵便의 길을 엇지못하엿스므로 오늘이야 보내게 되엿슴을 諒燭하시기 바랍니다. —鷺山—

第一日

無等山은 光州府에서 東으로 十里許에 잇는 全南道內의 第一巨山으로 光州 羅州 和順 潭陽 四郡의 背景이 되어잇는 名山巨岳입니다.

證心寺는 無等山初入의 名刹로서 新羅時代의 創建된 寺刹입니다.

住持鐵山和尙의 引導를 따라 證心門 翠栢樓를 지나 大雄殿 法堂앞으로 들어서니 左右에 會僧、極樂兩堂이 벌려잇고 法堂뒤에 五百殿이 다시 노혀 寺格을 가춤이 無等一山에서는 大刹노릇을 하려드는듯합니다.

얼른 눈에 띄우는것이 門內에 수북이 세워노흔 碑石인데 저 작돌아보매 信士女의 功德碑요 다만 아프로 水月、月岩 두분의 浮屠가 잇스며 法堂前後로 新古의 塔도 거지안케보이나 하나도 手法을 볼만한者는 찻을수업고 다만 塔아래잇는 一塔이 下層에 圓心四面의 十字刻文을 새엿슴에 눈이 머물다름입니다.

아닌게아니라 이것은 新羅古塔으로 五年前에 이 塔속에서 寶物을 發見하야 끄러내인것이 잇스니 두개의 國寶입니다.

하나는 金銅釋迦如來立像으로 螺髮高肉에 法衣를 通하시고 右手는 들고 左手는 드리워 圓滿具備의 相을 나타내신 製品이요 또 하나는 金銅普賢立像으로 天衣를 입고, 花冠을 쓰고 寶珠를 에 걸고, 두손을 가슴에 合掌하야 蓮花臺上에 서신 製品인데 둘이다 新羅初期로 國寶되기에 足한것입니다.

이밧게도 國寶로 볼만한것은 아니로되 同時의 塔內發見品인 로, 깨어진 五輪鐵塔과 水晶一顆에 二十三顆의 舍利缽珠는 必是 金珠인듯한것이오, 形狀만남은 鐵製小佛像二軀도 잇습니다.

그러고 이곳에잇는 國寶로는 오히려 四聖殿內에 모신 鐵製의 毘盧遮那佛像일것인데 本是는 光州邑 南門外의 大皇寺에 모셧든것을 數年前에 이리로 옴겨온것입니다.

이 毘盧遮那佛像은 結跏趺坐하야 左手로서 右手의 拇指를 잡은 所謂 智拳印을 보이신것인데 法衣를 감고 正座하엿습니다. 證心寺가 前日엔 무엇으로 名價를 놉혓는지 모르거니와 오늘에 와서는 이 세가지의 國寶를 保存한데서 無等山의 名刹노릇을 하게 된것입니다.

어언듯 山寺에 밤이 깁헛습니다. [illegible] 가에 울어예는 소리를 들으면서 [illegible] 心의 뿐을 어루만지온 眞實로 귀한 時間이라 하겟습니다.

山寺에 밤기프니 물소리 더욱차다
어젯은 온갓생각
눈감고 마음ㅅ되리를 손끗트로 만지노라.
(證心寺)

新刊評

嚴興燮氏短篇集 『길』을 읽고

李箕永

가튼 小說이라도—短篇小說은 短篇小說로서의 特徵이 잇서야하고 長篇小說은 長篇小說로서의 形式을 具備해야할것이다.

萬一 長篇小說을 雄大한 建築에 比할수잇다면 短篇小說은 雅致잇는 草堂이라할까? 何如間 長篇小說은 量으로 巨大한만큼 마치 連峰이 重疊한 山野와가티 焦點이 갈러저서 感情의 波動이 無數한 起伏을 이르키며 悠悠히 흘러가야된다. 그러나 短篇은 單一한 焦點을 正統으로 노려야하는만큼 조금도 빈구석이 업서야하고 左顧右眄할 餘裕가 업다. 그것은 短刀直入으로 단번에 急所를 찔러야한다. 兀然한 一峰이 平地에 불숙솟어야한다.

나는 『길』의 讀後感을 쓰는 마당에서 웨 누구나 잘할수잇는 이런말을 새삼스레 重言復言하고잇는가. 그것은 다른까닭이 아니다. 한말로 말하면 嚴興燮氏는 短篇作家로서 以上에 말한바 가장 重要한 射擊手란 말이다.

實로 嚴興燮氏는 短篇作家로서의 첫째 가저야할것—그것이 업스면 致命的 缺陷이될수잇는 貴重한 資格을 가지고잇다. 그는 短篇에 잇서서 누구보다도 焦點을 잘 노린다는 『눈』을 가젓다.

나는 具體的 實例를 擧示하기 爲하야 今番 그의 處女出版인 短篇集 『길』속에서 몃個의 作品을 들추어 보겟다.

于先 이冊의 第一 첫머리에 실린 『안개속의 春三이』를 들고보자. 實像 『안개속의 春三이』는 年代로 보아서는 以前作이지만 이 短篇集에 잇는 다른 作品에 比해서 그리 出衆한 作品은 못된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하는 本意도 여기에 잇다. 도리어 그의 빠지는 作品에서도 그 焦點은 잘 노려젓다 [illegible]. 『안개속의 春三이』는 亦是 短篇作品으로서 그 焦點을 노리는데잇서서 妙하게 도 [illegible]

嚴興燮氏는 放火犯 『春三이』를 [illegible] 看做하며 [illegible] 때로 追迫하야 [illegible] 되기까지 [illegible] 處理하엿다.

하긴 이런 手法이 唯獨 嚴興燮氏의 創案은 아닐것이다. 이러케 불러가면 作品을 손쉽게 [illegible] 新思潮 아니고 또한 저—(?) 스토리가 「안나카레니나」를 쓰게 된 動機를 [illegible] 에잇서서도 처음부터 事件의 中心을 파고드러가야한다는 敎訓

이잇거니와 嚴興燮氏는 焦點을 正確히 붓드러가지고 그것을 맷까지 잘 끌려가는 妙法을 가젓다. 그는 空然히 허튼수작을 느러노치도 안코 엉뚱한 재주를 부리라고 애를 쓰지안코, 簡潔한 筆致로 조금도 열린 [illegible] 焦點만을 노리며간다. 그래서 그 作家라는 이도 잇다. 事實 그는 牛步와 가티 鈍重한 듯하면서도 俗談에 「드문드문 거러도 黃소걸음」이라는말과 가티 結果에가서는 남의 앞장을 선다.

그는 누구의말과가티 無技巧의 技巧를 가젓다. 그것은 그의 代表的 作品인 『길』을 보아도 또 다한 다만 筆致가 簡潔하다는 것뿐아니다. 그것은 內容과 形式이 一致한 健全한 文學的 思想을 表現하고 잇기때문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眷大脫走記』도 조흔 作品이엿다. 나는 紙面關係上 『길』속에 收集된 短篇의 個個를 들어서 하고십흔 말을 못다하는것이 遺憾이다. 그러나 一掬을 마시고서 全鼎의 국맛을 알수잇다는 말과가티 只今이 자리에서 全作品을 죄다 말하지 안터라도 그의 全貌를 알수잇다.

마른 가지를 모아 [illegible] 그의 作品은 어느 것을 들추어보더라도 文學的 眞實을 描寫하기에 努力하엿다. 비록 焦點이 보다 稀微한 作品이라도 그것을 노리는 그의 作家的 態度는 [illegible] 나는 이로 봐서 [illegible] 그만큼 [illegible]하엿다는 [illegible] 고만 [illegible] 이冊을 紹介한다.

도기고

김빠진作家論

柏木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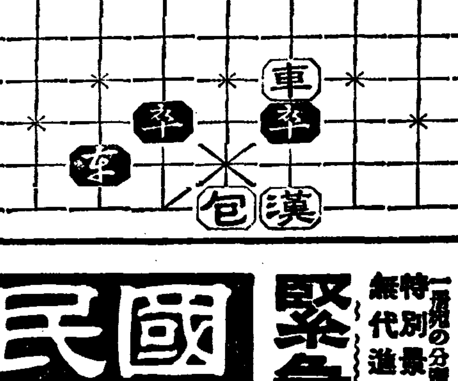
요사이 作家論이 一種의 流行現象과가티 盛行되고잇다. 그러나 作家論이란것처럼 어느 作家의 비오그라피—와 달리 獨立的 存在가잇다면 그것이 文藝時評이나 또는 作家의 비오그라피—와 다르지아니하면 안될것이다.

그러면 대체로 作家論이 文藝時評이나 비오그라피—와 다른점은 무엇인가? 文藝時評이란 그 말이 보여주는바와가티 究極的으로 一定한 時期에 發表된 文藝作品을 한개의 時事的 現象으로 取扱하여서 批評하는것이다. 이例로는 요사이 저—나리즘에서 取扱하는 作家論이란것과 所謂 아카데미한 文學史와를 對照해보면 그 批評의 方法을 알수잇다.

비오그라피—란 作家의 年代的 傳記나 逸話를 記述하는것이아니라 그 作家의 作品을 時事的 現象으로 取扱하는것이나 文藝性이나 興味가 그 作家의 作品과 作家의 關係가 斷絶되는것이다. 그러나 作家論은 어떤 作家의 作品과 그 作家의 年代的 生活이 어떠한 關係를 가지고잇나 하는것을 究明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그 作家의 作品과 作家의 內的 生活이 主體가 되는 批評이다. 이것은 作家의 作品의 上에의 傳記란것이 主觀이 되지 안흔 批評의 對象으로하는것도 아니고 文藝時評이나 비오그라피—보다도 더 興味잇는것이다. 그러나 요사이 流行하는 作家論이란것은 이 中間에 位置하는 批評形式이니 單純히 어떠한 作家의 作品을 읽어보면 하나도 作家論으로서의 이러한 要件을 갓춘것이 업다.

어떤것은 그저 그 作家의 最近 作品傾向을 이야기하는데 그치고 또 어떤것은 그 作家의 私生活의 에피소—드를 우시개삼아 이야기하는 程度이다. 이러케되면 세상스러히 作家論이라고할것이 업시 그저 어떤 作家의 作品評이라거나 또는 어떤 作家의 人物評이라고해야 正當할것이아닌가? 그렇다고 作品評이나 人物評이라고도 하기에는 그대로 興味가 업는바도 아니겟는데 그것조차 수박것핧기에 지나지못하니 이러한 作家論을 읽는것보담도 더 싱거운때가 업지안타.

◇博譜大集 104 【昨題解答】



一象—三四呼將 / 四車—二三 / 二車—四四呼將 / 五士—四四 / 四包—四四呼將 / 五士—五五 / 四包—六五象將 / 五士—四四 / 三象—五三包呼將 漢勝

(博譜係)

新刊紹介

▲마-가字 三月號 發行所 東京市京橋區新川二丁目二 마-가字ひろめ會 振替東京九一一番 定價二十錢

▲玄海灘 (詩集) 林和著 (內容) 네거리의順伊、세원、暗黑의精神、주라 네 팔내는것을、나는못밋겟노라、예배、젊은孃、다시네거리에서、낫、江가로가자、들、가을바람、벌레、안개 今等外廿七篇 發行所 京城府寬勳町一二一 東光堂書店 振替京城一六一二一番 定價一圓五十錢

▲黃眞伊 (小說) 李泰俊著 發行所 京城府寬勳町一二一 東光堂書店 振替京城一六一二一番 定價一圓五十錢 送料十二錢

▲基督敎報 第一五〇號(週刊)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 定價一部六錢

▲아이생활 三月號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아이생활社 振替京城一五一五一番 定價十錢 送料一錢

▲慶北老會敎會報 三月號 發行所 大邱府南山町五 慶北老會敎會報社 振替釜山八七八七番 定價一部五錢

▲게자씨 三月號 發行所 平壤府新陽里一八三의二 게자씨社 振替京城五三三一番 定價十錢

▲三千里 第二輯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三千里社 振替京城二九四九番 定價五十錢 送料九錢

▲現代朝鮮文學全集 短篇集上 第一回配本(再版)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定價一圓二十錢 送料二十二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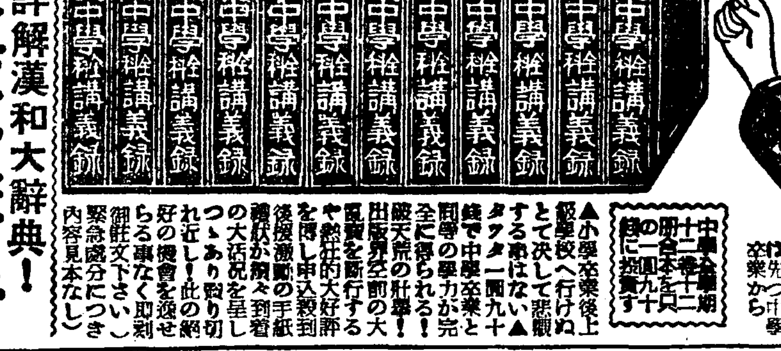
▲ホームライン 春季特別增刊號 發行所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一丁目 ホームライン社 振替東京一二一一番 定價十錢

▲白波 第四輯 發行所 咸興府春日町二丁目二六 白波社 振替京城二八八九一番 定價二十錢 送料三錢

緊急分處 大投賣斷行
辭典拾冊合本 のタダ一圓卅錢 分冊は各冊四十錢

法律百科大辭典 常用漢和大辭典 いろは引大辭典 現代新語大辭典 手紙百科大辭典 字くづし大辭典 英語獨習大辭典 文章百科大辭典 五分間演說辭典 社交常識辭典

特別景品 無代進呈 模範日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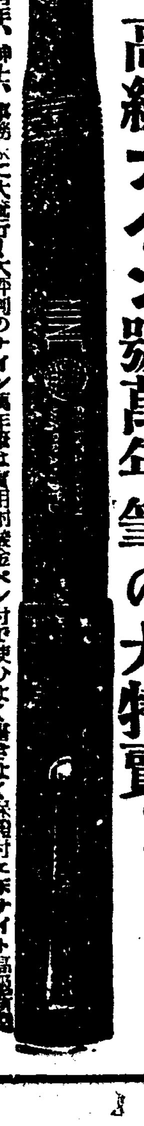
緊急分處 大投賣斷行
國民中學講義錄


立身出世は先づ中學卒業から

●定評ある！詳解漢和大辭典！
緊急分處 大投賣斷行 定價三圓八十錢をタダの一圓卅錢で大投賣す！

詳解漢和大辭典
千五百頁大册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局區內西町 合資會社 國民書院日報係 振替大阪五壹六貳壹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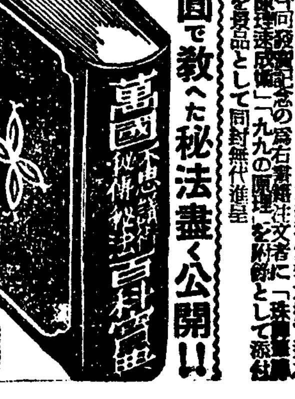
▼高級ナイン號萬年筆の大特賣！


▼正に白熱的！大好評 性敎育のテキスト 性典

▼人生至上の幸福に陶醉せんとする人は讀め！
▼そろばん下手では出世が出來ぬ
新式速成 珠算獨習の秘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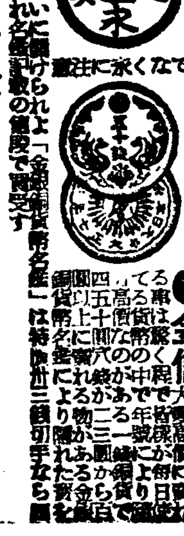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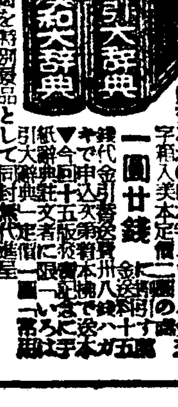
一圓廿錢

一種五圓十圓で教へた秘法盡く公開!!


本書內容目次の一部分
一圓十錢

手紙上手は立身出世が早い！
手紙の事なら何でも解る大評判の手紙の本

常用新案手紙大辭典
(不要返金)

景品進呈

いろは引大辭典 常用漢和大辭典

●金儲

春園의「無情」을 朝映에서 映畵化

朴基采氏監督으로二十日부터撮影

異彩! 女流文人의出演

봄마지한 朝鮮映畵界에 ……는朗報—春園李光洙氏의原作인『無情』이 映畵化된다 五十萬圓의資本으로 昨年에創立된 朝鮮映畵株式會社에서는 그동안 撮影所의設備等하느라고 이때까지 製作에着手치못하얏더니 이제그것이 完成되엇스므로 第一回作品으로 春園의『無情』을 映畵化하기로하고 準備가되엇스므로 오는二十日부터 크랭크를돌리리라는데 監督은朴基采氏가맡하이며 主……氏等으로決定되엇다는데 다음과가트며 女流文人崔貞熙氏의出演은文壇의이야기거리가되여잇스며 映畵無情은 오는五月下旬頃에完成되리라한다 (사진은『無情』脚本讀會光景)

無情스타프

製作 吳榮錫 李載命
原作 春園 李光洙
脚色監督 朴基采
潤色 金正革
撮影 黃雲祚
錄音 崔寅奎
音樂 金管
臺辭 李泰俊
國語版 白鐵
照明 崔進
進行 朴昌濤

出演
韓銀珍 金治根 崔南鏞
李錦龍 金一海 金信哉
特別出演 崔貞熙

明治座의아르락숀

유國舞踊團來演

十四日부터『모던타임스』幕間에

洋畵가 업서서 困難을當하는 興行界에서는 各館이 競爭的으로 아트락숀을 하게되여 前番黃金座에서 流行歌手를 데려오더니 今番에는 明治座에서 유-고스라비야사람들로組織된 짜스舞踊團을 불러와서 그리하야 今十四日부터 映畵의『모던타임스』幕間에 演奏시키기로 되엇는데 세르비안스워자-스舞踊團이라하야 一行은 모두八名으로서 알렉산다-메트로프氏가 指揮者인데 이자스團은 觀客의請求에 依하야臨時로 어떠한자스音樂과舞踊이라도 演奏해주는것이 特色이라고한다. (사진은 세르비안자-스團의名役들)

就職戰線

黃金座에上映

워-나兄弟社作品인『就職戰線』이란 새映畵가 지난三月十二日부터市內黃金座에서 上映되는데 바-크레이監督에 조-지부렌드와아니타루이스의主演이다.

라듸오

十四日(月曜)

◇午後六時 童謠齊唱과獨唱 一、齊唱도레미파 二、獨唱봄(金興順) 三、同나뭇잎(洪恩鮮) 四、齊唱봄노래 五、同벌 六、배사공 七、同송아지 八、同엄마일은가마귀 九、두루미이 十、同꼬부랑할머니 十一、獨唱초생달(吳福男) 京城昌信學院兒童 伴奏 成永鎬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情報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一時間……』 李昌實
……와그影式
◇日本國民의放送 李秉……
◇同八時 (伯林으로부터) 一、管絃樂 序曲「레오노-렌」第三番베-토-벤作曲 伯林放送交響樂團 指揮 近衛秀麿 二、獨唱 슈-베르트의作品서 가지
◇同八時三〇分 二、長唄 三、山念佛 四、자진念佛
◇同九時 (平) 라듸오小說 金玉 崔明淑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偉人傳
◇同六時二五分 (東)支那語
◇同六時三〇分 (東)歌謠
◇同七時四〇分 (東)講演
◇同八時 日獨放送
◇同八時三〇分 (大)義太夫
◇同九時三分 (東)講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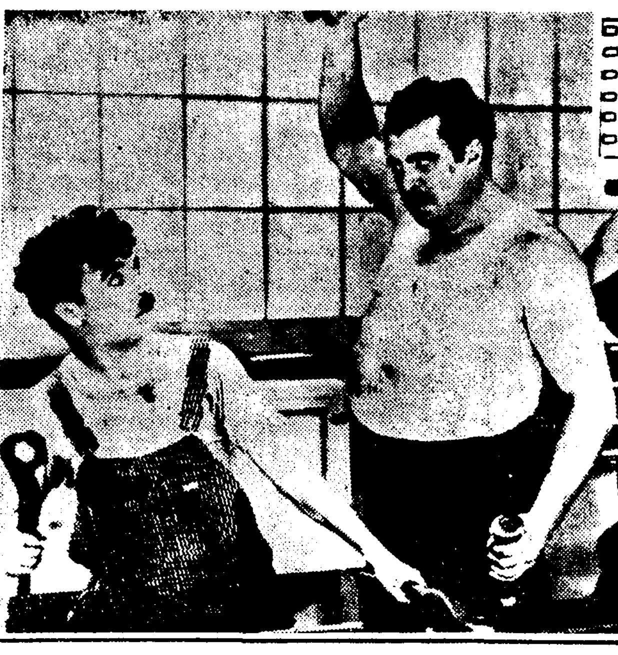
十五日(火曜)

◇午後零時五分 歌謠曲(레코-드)
◇同一時 入學試驗合格者發表(京城)—京城培花女子高普—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寶石이야기』 金容瓘
◇同六時 童謠와이야기 一、童謠 1、齊唱적은달 2同진옹우에참새 3、獨唱 라플곳(朴英姬) 4、齊唱달아달아 5、同공치기 6、同봄 7、同저녁인사 二、이야기 1、반쪽병아리(金玉實) 2、겁쟁이토끼(李基信) 三光幼稚園兒童 伴奏 鄭在鑒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人種과眼色』 趣味講演 中央高普 李根嚴
◇同七時四〇分 (平)講演『支那事變과今後의財政展望』 平壤商工會議所 朴向信
◇同八時 舞臺劇 —東洋劇場으로부터中繼—『토끼타령』中 山中場面 金容承脚色 第一幕 (각主役이座席다음) 配役 鱉主簿 林芳蔚 토끼 金演洙 범 丁南希 노루 申快童 사슴 徐翊九 도야지 金光淳 너구리 鄭永學 잔내비 吳太石
◇同九時 피아노獨奏 一、토카타우시히編曲—그D短調 베하作曲 二、悲愴소나타 作品十三 베-토-벤作曲 그라-베-알레그로 몰토·에·콘브리오 아다지오 칸타빌레 三、론도알레그로 ……베르-트作曲 리스트編曲 S、M、엔더슨

第一放送

◇午後〇時〇五分 (大)小話
◇同六時 (東)偉人傳
◇同六時二五分 (平)講演
◇同六時三〇分 (東)歌謠
◇同七時四〇分 (自天津)
◇同八時 (城)新日本音樂
◇同八時三〇分 (東)短唄
◇同八時四〇分 (京)松明式
◇同九時 (東)講談

映畵批評



차프링의 모던타임스

明治座에서上映

오래간만에對하는 차프링作品이다 어떤映畵의스토리-는지금으로부터 十年前의 편에게는 共鳴을못하지모른다 지금은 그것이 常識으로되여잇스므로 그다지 新鮮味는 늘수가업섯다 잇는것을 그냥드러냄 주낫한 스토리엿스나 우리가노리評價하고시픈것은 意味가强하다는데 그친다。 以前의 차프링—그가 토-키를실허하고 어四〇年代에는無聲을固執한다는것은그의高潔한 藝術的態度를보여주는것으로愉快한일이다

차프링은 이作品을 모멘트로하야 새로운出發을 하지안으면 안될것이다 이作品은그의지금까지의過程을 決算하는 作品이되여야 할것이다 아프로 토-키에서 살지안흐면안되리라는것을 이映畵를보고 切實히느겻다

차프링의演技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는 省略하지안흐면안된다 그것은 차프링에지금새삼스러히演技를 이야기해보아야新味가 업는까닭이다보담도 이映畵를한가지 映畵古典으로 생각하고싶다 演技도 옛날에 차프링 內容도 옛날의그것 오음파 帽子와스텍파 구두도 옛날의그것이아닌가三四卷짜리의 喜劇을보는듯한感想外에 無聲映畵의 가저야할 모든 條件이完全한 領에達하여잇다는것밖게 남지안햇다 (W·K)

—(十四日부터 市內明治座에서上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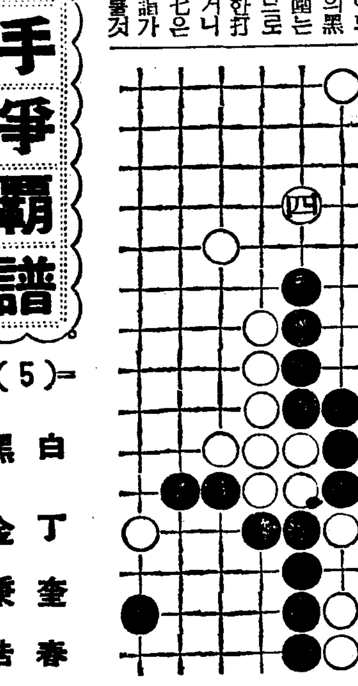
邊地에戀戀함과 中央進出의大計

三玄子

前回에서 黑이 進二次의 無理를 敢行한代價는 마참내白의威脅에 暴露된것뿐이라는 顚末을 말하얏거니와 그까닭에 이제 黑은布陣의自由를잃허 黑三三을 辰의一〇으로直走치아니치못하얏다 그리고白三四午의八은 當然한 發展이오 黑三五巳의八은 缺할수업는 應手이어니와 白三六午의九는 먼저卯의一〇에두어 黑의邊地를버리고 中央으로進出할意思가 엇게하는것여 옳지아니한가고 생각되며 黑三七午의一〇은 우에서 말함과가티 黑이邊地에 戀戀하야 中央進出을 斷行치아니하니 白三八卯의一〇은 다시先手로 白이占有하게되엿다 黑三九辰의一一은 缺할수업는 打點인데白四〇寅의一二는 午의一二에두어 黑의邊地構築을 妨害하고 右邊上隅에 四手着點을 이方面으로 發展시켯스면 白의實利는 中央에 作勢하는것보다 훨신 것슬것이다 卽白四〇을 午의一二에두면 黑未의一〇 或은午의一一로 應手치아니할수업스니 그버금 白이午의一四 或은 巳의一三에두면 어上隅의 白地는 堅固한一大地盤이 되지아니하느냐 그리고 黑四一未의一〇은 白四二가 未의七로 應手치말고午의一三으로 上隅의白陣이大斜走하면 어찌될까 卽白四二가 午의八九의 白二點을 犧牲하고 午의一三에두면 別圖와가티 黑陣이包圍되고 中央및 右邊上隅一帶에 廣大한白地가 構築되여 白은 絶對優越한陣勢를 자랑할수잇다

어제 다시別圖를 解明하면 黑一未의一〇、白二午의一三、黑三未의七 白四辰의一三이되어 右邊中央에 十戶未滿의黑陣이 構築될뿐이오 그外圍는 全혀白의天下가된다 그러므로 黑四一未의一〇이 無感覺한打點인것은 말할 必要도업거니와 그보다도 白四二未의七은 棋法에對한 아무리한 遵詣가 업는 初學者의貪棋와 다를것이업다는 非難을免치아니할수업다 黑四三卯의一一、白四四寅의一一은 通常酬應이오 黑四五午의一四는 巳의一四에두는것도조흘대 어제그의優劣은 말할수잇는것이아니다 또白四六卯의一六도 丑의一七或은一六에 두는것이 조켓는대 어듸든 모두 趣向問題이니 煩言치안는다

……參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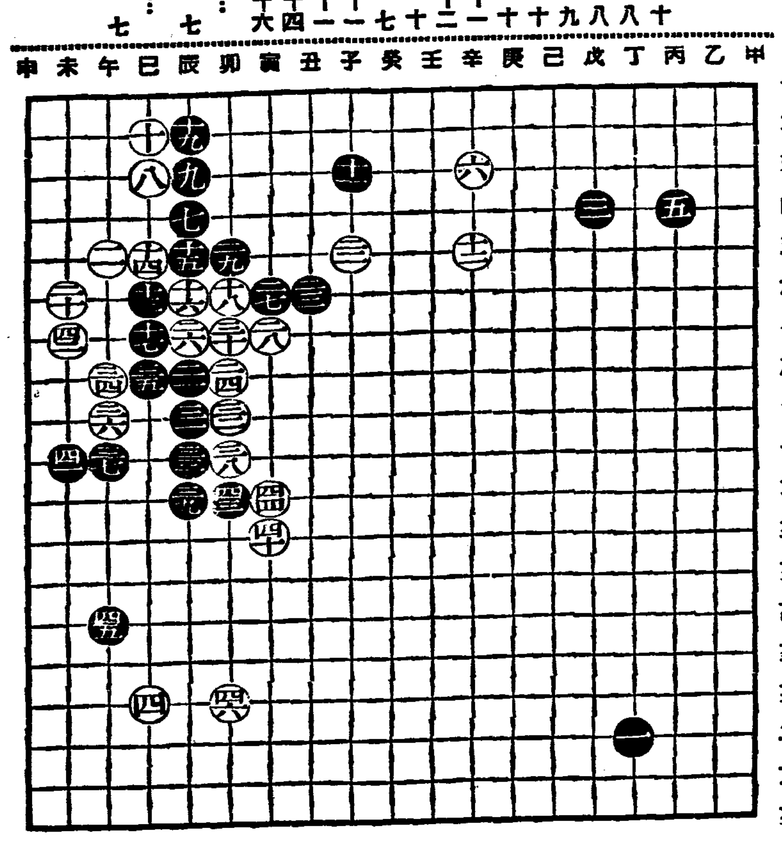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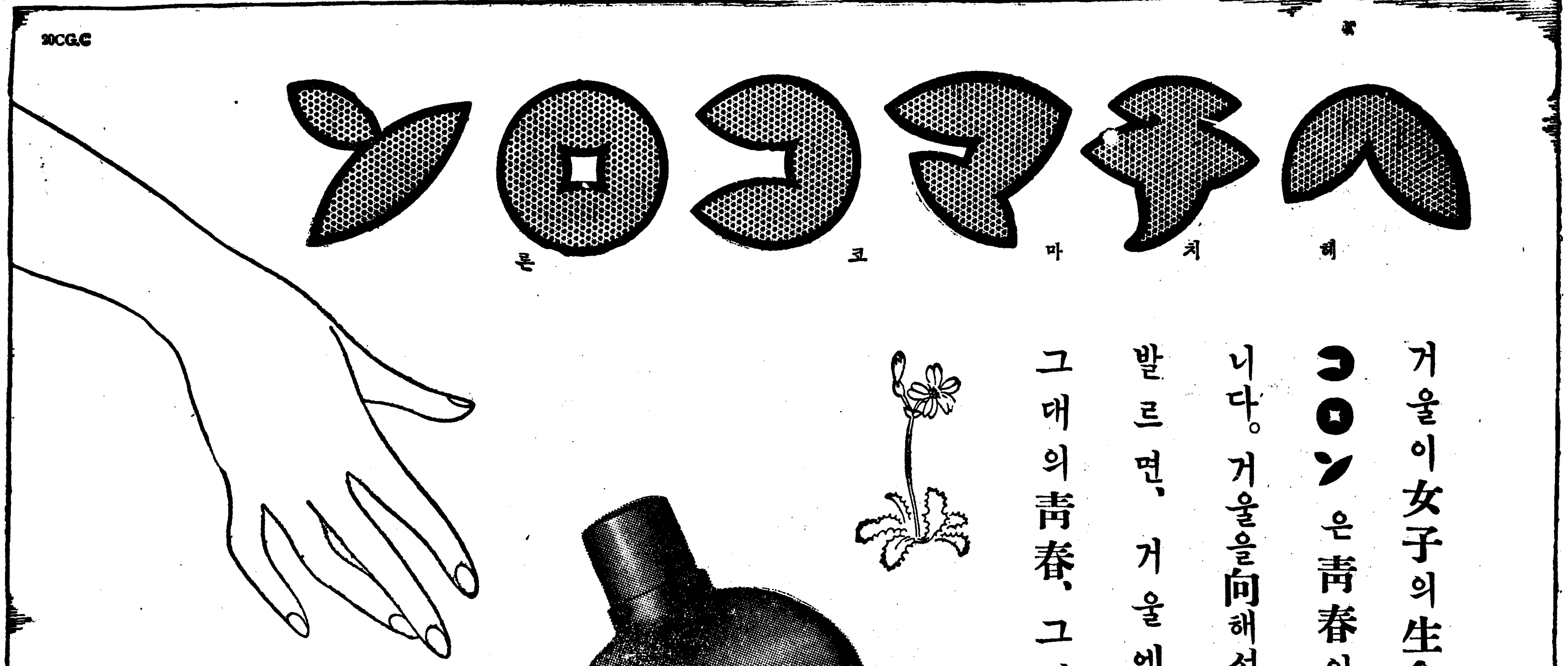
本社獨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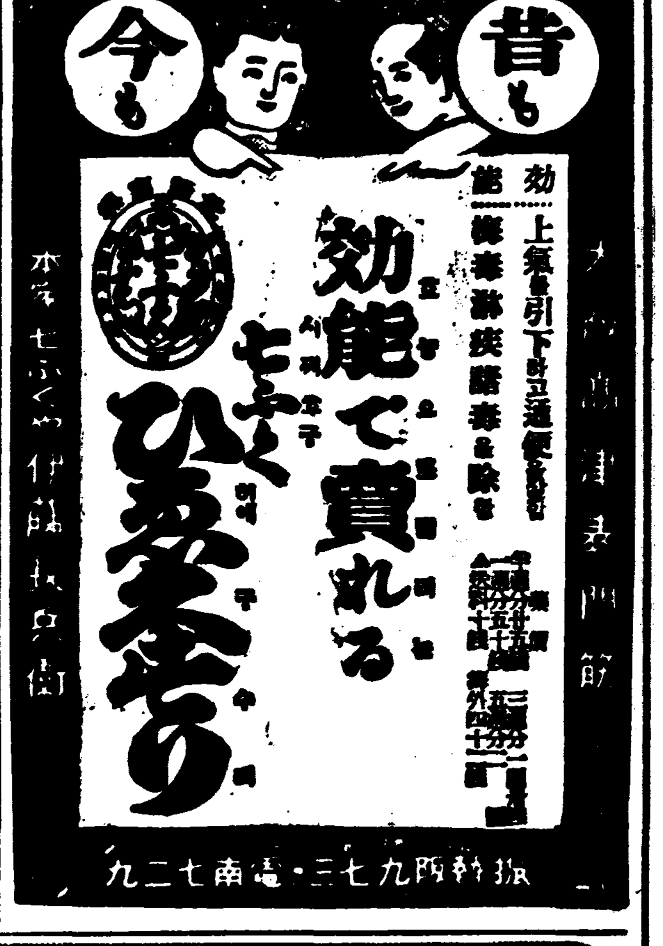
國手爭覇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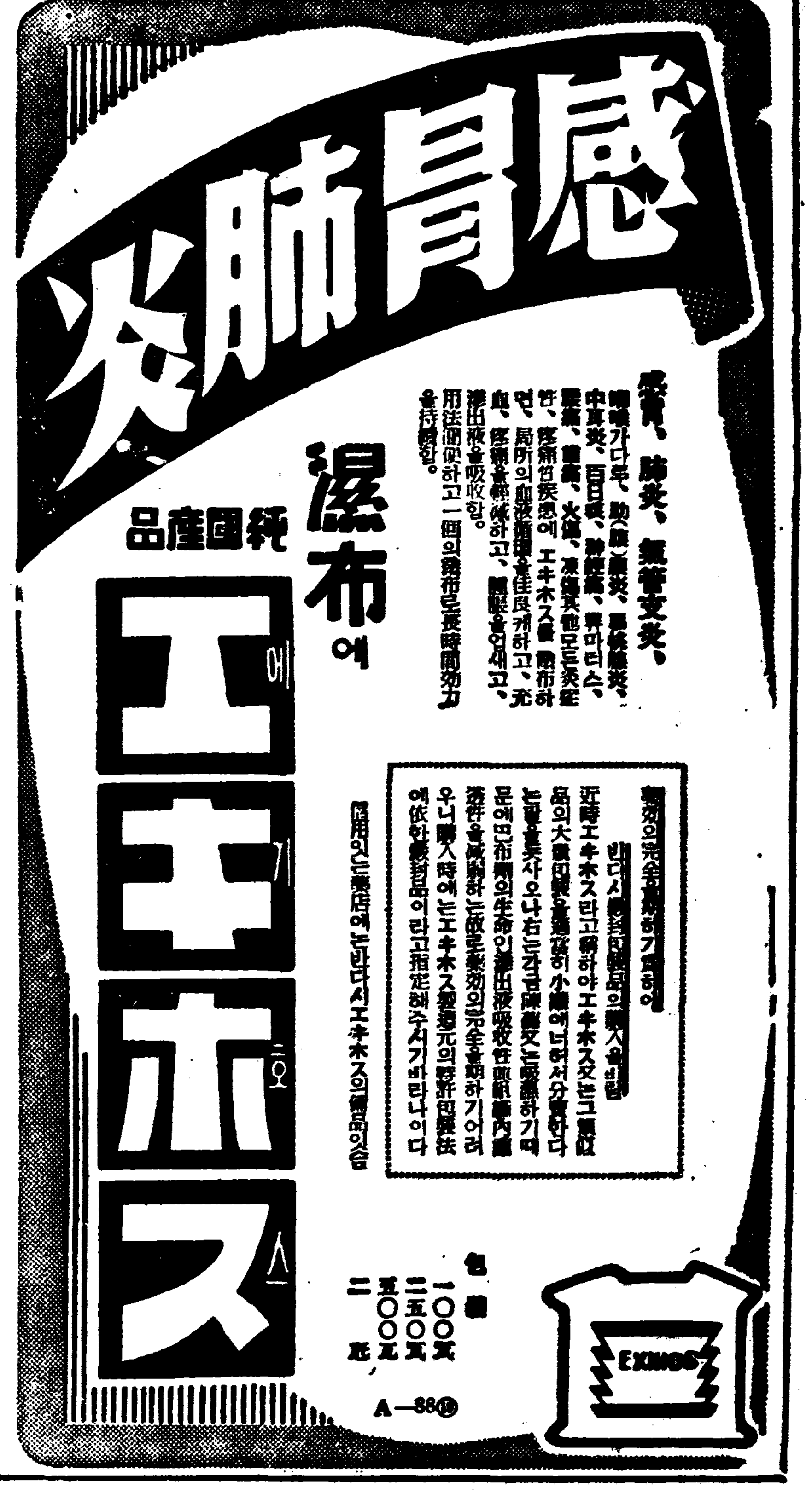
白 丁奎春
黑 金秉浩

● 三三 辰의十
○ 三四 午의八
● 三五 巳의八
○ 三六 午의九
● 三七 午의十
○ 三八 卯의十
● 三九 辰의十一
○ 四〇 寅의十二
● 四一 未의十
○ 四二 未의七
● 四三 卯의十一
○ 四四 寅의十一
● 四五 午의十四
○ 四六 卯의十六
……死點……
● 四七 卯의七
……粘……
○ 四八 卯의七









經濟鮮日說 ⑦
物價高와 그 對策

我國의 物價가 海外諸國特히 我國과의 貿易에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있는 諸國의 物價의 動向과 어떠한 關係가있는가 하는것은 어떤時代에 있어서든지 等閑할수없는 硏究題目이요 特히 이제物價의 將來를 檢討함에는 우리가 이저서는 아니될 重要問題이다.

內外의 物價를 比較함에 있서서 注意치안하서는 아니될것은 各國의 物價指數의 作成法이 各各 다를同時에 其基準年月도 全然 區區하므로 大體의傾向을 밝히는데 머물르는것이다. 가령 調査基準이 갓다고하드래도 其表面의 數字의多少만으로 一國의 物價水準이 他國의物價水準보다 高다든가 낫다든가를 斷定할수가업는것이다. 例를들면 第一表의 十三年一月을보면 東京은一九四·九 倫敦은一一六·六인데 이에依하야 東京의倫敦보다도 物價水準이 高다는結論을얻을수 업는것이다. 왜그러냐하면 基準時에 있어서 物價가 同一하지안코 同一한商品이 倫敦에서 價格一磅이고東京에서는 二圓이였다고 하드래도 兩方이 同價으로 一〇〇으로 定한까닭이다. 그러나 騰貴의比率을 比較할수는 잇스므로 이에依하야 兩國間의 物價의關係가 어떤傾向을 示하고잇는가를 알수는잇다。

×

我國에서 內外物價의 比較를 便利케 하기爲하야 作成된것은 日銀의 內外都賣物價指數가 잇는데 지금 어에依하야 東京의 物價의 騰落을 倫敦 紐育의그것과 比較하면 昭和八年부터 十一年上半期末頃까지동안은 各國의 騰落率은 多少 相違는잇스나 大體로가든 傾向으로 動하얏섯다。(第一表參照)

그러든것이 十一年下半期부터 日本과英國、米國의 物價間에는 顯著한 差異가 생기엇스니 即 十一年下期부터單獨的인 商品의騰貴가 잇섯고英米도 翌年三、四月까지에相當히急激한 物價의 騰貴를示하엿스나 我國에 잇서는 이原因外에 輸入投機와 爲替上의 關係이 잇섯스므로 物價騰貴의 速度는 英米를 훨신凌駕하엿다。 十一年六月과 英米物價가 最高를示한 翌年三月과를 比較하드래도 英의 二割八分一厘, 米의 二割一厘의騰貴率에 對하야 我國에서는三割三分六厘를 示하고잇다。

海外物價와乖離
我國高物價特異性

그리고 또 騰貴한것은英米에잇서서는 昨年三月을 頂點으로 其以後는 物價가 漸落하고잇스며 反하야 我國에서는 四月以後 一段反騰期에 드러갓다가 昨年末부터 再次急騰하고 英米와의間에 非常한差異를生한것이다。 即 十一年六月과 本年一月과의 比較에잇서서 英은 一割三分四厘의 騰貴、米는 七分二厘의 下落을 示하엿슴에 對하야 我國은三割六分의 騰貴이엇다。

×

我國物價水準의 海外物價와의 乖離는 準戰時體制로부터戰時體制에의 移行에 伴하야 我國의 經濟機構도從來에 制限된個人主義乃至自由主義로부터國家主義乃至統制主義에의 다시一步를 나아간 現實이다 即十九世紀初頭부터 世界의 政治經濟의 指導原理이엿든 自由主義는 어를 經濟的으로보면 國內的으로는 自由競爭이고 對外的으로는 自由通商의 事實이엿다 그것이世界의 經濟的發展에伴하야 國內的으로나 國際的으로나 幾多의矛盾을生하야 自由의修正을밧게되고 이를國際經濟上으로 보드래도 自由通商主義가 近年에잇서서는 保護貿易의傾向을 밟어온것은 周知의事實이다 本是 我國에잇서서도 自由通商主義는 漸次稀薄하게되여 近年은保護貿易으로되여 잇섯지만 그래도 그것으로도 世界經濟와의關係는 어떤程度까지 保持되여잇섯다 그것이 日支事變을 契機로 我國의 經濟機構가 準戰時體制에서 戰時體制로 進展함에이르러 我國의 經濟組織을 維持키爲하야 外界와의 經濟的連絡을 끈치안해서는아니될狀態에 陷한것이다。

現在、錫의輸入採算은 一噸四百圓인데 內地市勢는 千二百圓이나된다。 그것은 무슨까닭이냐하면 以前과가티 國際的인 價格平準作用이 行하여지지안흐므로서이다。 즉 本的으로보면 輸出入이라는個人의營業이 個個人의 利益보다도 다시 그우에잇는 國家의到害에依하야 規定됨에이른까닭이다。 昨年四月以來 海外에서는 金物類가 反落을繼續하고잇슴에反하야 我國에서는 逆으로 飛躍的騰勢를 維持한것이라던가 羊毛製品、綿製品에 있어보는바와가튼 內外價格의 乖離는 世界의 分離等의現象은 모두가 物資需給關係에 世界的關聯에서 斷絶된 結果이요 그와 同時에 我國經濟의 基本的物價로 또 어느程度까지 乖離를 是正하지안허서는 안될 것이되엇다。

×

그런데 物價의內外比較에있서 注意치안허서는 아니될 것은 爲替이다。 外國과의 物價를 比較하는데 잇서서 가장重要한 意義를 가진것은 各國의 物價의 下落이 輸入을 增加하야 輸出을 減退하게 되는것인데 이것은 價格이 各國의 物價指數에만 이니라 爲替의關係를 考慮하야 判斷하여야 하는 것이다。 我國과 英米와의 爲替 關係가 必要하다。 第二表는 日米英의 物價指數에 對米價로 除한것을 爲替率 로 換算한것이다。

第一表 內外都賣物價指數比較
(日銀調查、大正三年七月을一〇〇으로함)

	東京	倫敦	紐育
昭和九年平均	一三一·三	九九·一	一〇六·五
十年平均	一四〇·五	一〇三·五	一一四·八
十一年六月	一四三·五	一〇五·八	一一三·〇
十月	一五四·三	一〇八·〇	一一八·一
十二年一月	一六六·三	一二二·三	一二九·〇
三月	一七〇·五	一三一·七	一三五·七
四月	一七〇·二	一二九·四	一三三·二
七月	一六九·八	一二七·九	一二八·五
十月	一六七·九	一二一·九	一二八·八
十三年一月	一九四·九	一一六·六	一〇四·九

第二表 內外主要商品騰貴率比較
(東洋經濟新報社調查、大正二年一月을一〇〇으로함)

	日本	米國	英國
昭和十年十二月	一〇五·四	一〇九·六	一〇六·九
十一年六月	一〇六·五	一〇四·三	一〇八·五
十二月	一〇六·三	一〇八·一	一二〇·五
十二年三月	一二五·九	一二六·七	一三〇·三
七月	一二五·九	一二四·九	一二九·五
十月	一二八·九	一一八·五	一二七·七
十二月	一二一·四	一〇九·四	一二一·五
十三年一月	一二六·七	九八·六	一一七·五

大豐作에배불러서 朝鮮米消費增大
四個月間一千八十四萬餘石
總消費一千五百五十萬石?

三月一日現在朝鮮米의 殘存米는 一千一百五十一萬六千九百石인데 어殘存米高를 基礎로 昨年十一月以降二月末까지 四個月間의 消費狀況을 計算하면 即

◆供給
繰越高 三二五千石
實收高 二六、七九六
輸移入 二〇
計 二七、一四一

◆需要
輸移出 四、七七九千石
現在高 一一、五一六
計 一六、二九五

◆差額(消費) 一〇、八四六

으로 差額千八十四萬六千餘石인데 어것을 二千四百萬人口로除하면 一人當 四斗八升의 消費로 昨年同期의 計算인三斗八升七合에比하면 過去 四個月間에 約一斗의 消費增을 본터이다

消費量을 供給量에比하면 四割約 이에該當한다 그런데 昨年二月까지의 消費量八百五十七萬七千餘石을 昨年度의總消費量 一千二百五十七萬九千餘石에比하면 六割七分에 該當하는데 어比率이 今年度에도 반드시그대로될것이라고는 안해도 大體의 比率을 어比率로計算한다면 今年의總消費量은 一千五百五十萬石假量으로볼수잇고 今後八個月의 消費는約四百六、七十萬石으로볼수잇다

今後移出餘力 六百三十萬石?

이제 다시今後의消費를 四百七十萬石 持越米를五十萬石으로보면 今後의輸移入을 考慮에너치안코도 今後朝鮮米의 移出餘力은 六百三十萬石程度를 不下할것이라는 推算이可能하다 그럼으로 移出總計는 一千百萬石으로되리라고볼수잇다

第四、五次 買上豫想
三次까지五百萬石

그리고 米價는 百萬石의買上發表로 相當히强氣를보이고잇거니와 現在政府米는 今回의買上을合하여도 五百萬石臺를 넘지못하므로 今後다시 四次五次의 買上이잇을것으로豫想되며 今後米價는 아직도底硬한何어잇슬것으로 觀測되고잇다

見本市賣上高

十二、三兩日에行한 京城商工見本市는 最初의豫想賣上額五十萬圓과背馳하야 四十一萬四千七百五十二圓이라는 成績이엿는데 前回에잇서서의 四十萬圓이나賣却한 食料品이 本年은品不足으로因하야 參加店이적고 特히 辻本、吉川의兩店의 不參加가賣上減少를招來한 原因이라고한다

主要港在米

三月十日現在의 全朝鮮主要港在米는 百四十七萬二千七百八十一石으로 二月末에 比하야 二十七萬八千八百八十九石의 增加이엇다

米倉在庫
驚異的激增

米穀의 十日現在在庫俵數는 合計六百二十七萬六千俵로 前年同期에 比하면 前年은 二百九十七萬九千俵로 三百二十九萬七千俵가 增加이라는 驚異的數字를보히고잇다 各支店別로보면 如左하다

釜山 八六、六三 馬山 一四四、三九 麗水 一六六、四五 木浦 八〇、三六 群山 一、三三、六六 江景 一八〇、一三六 仁川 一、三九、五四 海州 三元、五四 南浦 一、三三、四四 元山 三三、二六 浦項 三四、四二 計 六、二七、六四

또 一月末의 日本倉庫協會의 在庫數는 三五、七二三千俵에 比較하면 米倉의 이數字는 六分의 一에 該當한다

市勢低落阻止策
外國爲替賣買變更

【上海十四日發同盟】漢口來電에 依하면 中國政府는 北支新銀行의 設置에 依한國幣市勢의 低落阻止策으로 外國爲替의 賣買方法을 다음과가티 變更하고今日부터實施하게되엿다

一、外國爲替의 賣買는 漢口의 中央銀行에 集中하고 香港에 其事務所를設할
二、外國爲替를 買入하려고하는 外國銀行은 中央銀行에 申込할
三、中央銀行은 外國爲替買入의 申込을 審査한後 現在의 市勢로 供給할것

上海中央銀行 爲替統制賣中止

【上海十四日發同盟至急報】上海의 中央銀行은 突然十四日上海에서 爲替의統制賣를 中止하고 外國爲替市場은 機能을 喪失하얏다

上海市場『노미날』 對日百一圓丁

【上海十四日發同盟】中央銀行이 突然今日부터 上海에서 爲替統制賣를中止하엿스므로因하야 市場은 全혀노미날化하엿는데 市中氣配는 對英實現物一志二片八分一 對米二十九弗十六分七가량이라고한다 一方對日은 百一圓丁賣、先物노미날이라한다

香上銀行賣繼續

【上海十四日發同盟】上海에서의 中央銀行의 賣止에對하야 香港上海銀行은 商人에對하야서는對英一志二片八分의一 對米 二十九弗八分三으로 繼續賣却하다는것을 發表하엿고 邦人銀行도 對日現金만 百一圓의比率을 내고잇다

鮮銀保證準備 擴張은안한다
松原鮮銀總裁談

渡東中이든 松原鮮銀總裁는 十二日歸任하야 다음과가티말하엿다

政局은門外漢이므로 勿論알수업스나 總動員法이나 電力法案이나 結局은兩院을通過할것이라는觀測이强하다

日銀의保證準備擴張案은 今議會에提出될形勢이다 日銀의保證準備를擴張하드래도 鮮銀도이에追隨하야 擴張할것은아니다

金融界는 短期資金의 成績은相當히 良好하고 長期資金도開拾되엿다 本年에드러서부터의起債額은 一億五六千萬圓에 達하는데 相當한計劃이 잇는것갓다 要컨대 政府支拂이 非常히만흔것과 輸入貿易이減退한것等으로 오래동안 事變으로因하야 梗塞하고잇든 金融이常道에 回復하엿다고할것이다 北支方面은 可及的 速히가보려고생각은 하나 別로 重大要務가잇는것은아니다 中國準備의『크레딧트』가 成立하고鮮銀도이에參加하엿스나 이것은我國一流의 銀行이全部聯銀에協力한다는 意味일것이다 鮮銀券은 聯銀의 開業에 依하야 自然撤收케되는것이나 突然撤收할수업는것이므로 順次로 行하게될것이다 그때문에必要가잇다면 業務協定가튼것을 締結할는지도몰른다

鐵道局施行豫算
◇…二億六千五百餘萬圓
輸送力强化에置重

帝國議會에서 可決된 朝鮮鐵道局 昭和十三年度의 施行豫算은 合計二億六千五百七十二萬五千五百六十四圓의 巨額인데 어가운데서 ◆歲出經常部는 一億八百四十八萬八千八百二十三圓◆私鐵補助費 四百十萬圓 ◆臨時部 一億四百三十九萬二千百八十圓 ◆拓殖鐵道費 四十五萬圓◆鐵道用品費 五千二百十八萬六千七百四十一圓이다

그리고 臨時部中 建設費는三千二百二十二萬五千五百圓이며改良工事費는 七千二百十六萬六千六百八十圓인데 이가운데는 新年度부터 總額三千九百萬圓으로써 三個年間 繼續事業으로 進行할 京義複線(京城、平壤)工事費의 新年度割當額 一千三百萬圓도 包含되여잇다 또 車輛費는 二千四百五十五萬九千三百圓으로 昨年度에 比하야 一千三百三十三萬八千二百七十四圓이나 增加된 셈인데 어것은 十七年度分으로 繰上하야 現在의 車輛不足을 急速히 增備하려하기때문이라한다

이번豫算의 編成方針은 改良을主로하고 建設을 從으로하야 戰時體制에 相應하야 輸送力의 强化에 置重한것이다 新年度부터 施行할改良工事의 重要한것은 …

鐵道上旬荷動

鐵道局三月上旬分 荷動狀況은 前旬에繼續하야 堅調를保持하고 粟、建築材料、繩、叺莚、肥料等外에各品目은 모두가增을示하엿다 本旬成績은 卅一萬七千六百廿六瓲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六萬四千百九十四瓲의增加라한다

經濟界消息

○貿協副會長兼專務理事選擧될것으로 澁谷禮治氏(鮮銀調查課長)로內定

正租上場問題協議

米穀硏究會에서는 十八日銀行集會所에서 最近物議에오른 正租의上場問題에關하야 硏究會를開催하게 되엿는데 出席者는同會會員外에 總督府、穀檢關係者 二十數名豫定이라한다

「스·파」混用 協議會開幕

『스테풀、파이버-』混用에關한協議會는 十四日午前十時부터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開催하고各道技術官、係官及西本商工課長外關係官이 出席하야 左記指示事項을 中心으로協議하엿다

一、綿製品 生產者及 消費者에對한 混用規則의 周知徹底에關한事
二、스파應用製品使用及 生產獎勵에關한件

또十五日會議는中央試驗所에서 行할모양이라한다

株式 突込後에 一息
今日의市勢(十四日)

前場波瀾

休日을지낸今前場은 投物一巡의下止寂寥으로一旦寄付엇스나 內地에서 鐘紡을 新低價로賣込하얏슴으로 當地도 二百六十一圓丁에까지 慘落되엇고東新도 前週土曜의 低價를 十錢下廻하야 百六十一圓九十錢에까지 떠러저서 揚面陸續되어다가 引際反撥로 反騰되어結局前場末尾 大體同盟로大引되엿스니 東新三圓四十錢 大新九十一圓九十錢 鐘新五圓三十錢 大引六十五圓四十錢 鐘新三十九圓三十錢에大引되엿다

後場一息

後場은 鐘紡二百六十六圓丁에 七十錢高 東新百六十三圓五十錢 大新九十一圓九十錢 朝新三十九圓六十錢 滿金八十五圓九十錢에 寄後反撥도 업고 一息裡大引되엿다

鐘紡도新低價 東新은下盜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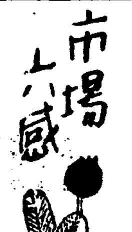
『인플레』와 物價高는 進行되는터이오 抗日支那는거의 戰意를喪失하얏스나 이런大勢論으로 株式市場이다

總動員法案을 이번事變에도適用한다 高率配當은 抑制한다鐘紡增資는不許한다 增資되드래도 二倍增資일것이라하야 前週金曜부터 鐘紡賣바가 猛烈해지고그것이 全面的自滑的 整理場面을 演出하야 投물은投물을呼하고 山一의正株引受까지 賣目標삼어 鐘紡百五十圓臺落潮不應하야 休日을 지난 今前場도 鐘紡에는 新低價인二百六十一圓丁으로 崩落되엿다(東京二圓十錢、大阪二圓丁)東新은 當地는 百六十一圓九十錢의 新低價이엇스나 東京은 二圓十錢 大阪은 二圓三十錢으로 新低價가아니오 下盜이엇다 그러나 市勢가 어기리 龜裂이생기어 惡化되엇스니 當面好轉은 바라기至難하고 大局的樂觀買가 解消된것을 否定할수업다고 軟派는豪語하고잇다

賣方地位有利

强弱變方이 對時하고 價位가 中間에 處하야 整理를 遷延시키고近來稀有의大閑散이다가『閑散에賣엄다』는 前例를깨트려龜裂이 생기고 慘崩되엇이만큼前途觀은 容易히 樹立할수업고全面的으로 無氣力한市勢로되엇다 所謂大勢高를 미더難平買下方針을 取키에는 너무나 內外大材料가 錯綜해잇스므로 몇戰勝前의 『인풀레』를 買할수도업고 目前의 政府支出膨大와 金融緩慢보다는 統制란 大壓迫材料가머리를누르고잇스므로하모리해도弱氣가有利한 地位에서잇서 統制가經濟界全體에 變革을 주는것

市場六感



㊑……鐘紡은 二百六十一圓丁(前場)에까지慘落 東新은 下盜에나 反撥無力◆어번事變에는 戰勝市勢가잇슬지 업슬지 未定하지안을 내릴수업고 火藥庫『中歐』에 불이붓럿스니 (三國協定關係로보아 반드시賣材料로 삼지안는도 非常時總動員法案等의 統制强化로볼수잇다◆그러하나 時局의 整理에어서 日에目한 時間의 整理에어서 갑스로도整理되어 鐘紡가튼것은 增資로된것을 解消하고 도리어 그以下로 되고 昨秋가튼 恐慌市勢로된 相應할가◆그뒤에올것은무엇?

㊍……殘存米市勢로는 强氣側의 取運氣運이 濃厚하야休日前은 强分軟調子이 優勢어더니◆突然政府로서는 뒤늣게出하야 斷節이라는 名目으로 百萬石을 買上하겟다는 發表에고 끈 떠러진 步幅만큼 夜放두고 市勢는 一轉强化◆三百日을 니賣方으로서는『十年工夫덧아미타불』格◆그러나 朝鮮米는 五十萬石을 控除하드래도 日本內地米五十萬石과 昨年同期보다 百四、五十萬石이 殘高이엇스니 이大勢는 未盡◆그러나 緩和補給에어서 이 給料를 맛추어보다면 結局은供給過剩이어 强氣만의 天下도 못될것◆何如間 目前은買上好勢으로 市勢는 動必高化하겟고 거기다가 物價高라는 時代色이 添加되엿스니 保合을바라드래도 强保合일것?……。

期米 爆發後에 沈靜
前場爆發

一休會 經한今朝는 例의百萬石買上 好感으로 人氣强化하야 買氣熾烈하며 大阪三期 一齊히 上放한 當三十四丁 中三十六丁 先三十丁 爆發인 先五圓六十四錢을 獲하고 當地亦 熱狂買進하야 當은二十九丁高인二圓三十一錢 中은三十四丁高인 二圓六十三錢 先亦三十二丁暴騰인 二圓九十五錢으로 場을始한後 大阪一服 漸次下押인 六十錢同價를 振하고當地亦 買氣一巡하야 九十錢까지低押하엿다가 九十一錢同價이더니 結局 阪地五十九錢과 共히 九十一錢에 止場하다

後場細刻

後場은 三十二圓八十九錢에 二十錢로 給場後 八十七、九錢으로 揉合이고 五節八十七錢이엇다

高價買上은 警戒

休日前으로論하면 殘存米量이 全體로보아 減少程度가 僅少하려라는 强氣의 期待的도 買…

結局强保合?

買上好感으로因한 買氣熾烈로 市勢는 急轉强化하야 賣方으로서는 再次不利한 處地에立하게하엿는데 元來昨年以來의 市勢로論하면 非常時局硬一色의環境所致로 動輒即 强化하는것이『相場律』이 되고만것가튼 觀이 잇는 殘存米로論하면 百五十萬石의 殘存의兩者를노코 考察하건대 以上 二百萬石의 激減이엇스리라고 傳하는것이 朝鮮米는 豐作餘의減少이엇고 意外로 減少된 嫌이不無하나 昨年에比하면 約三百萬石의增加이니 兩者를 合算하여보면 二百五十萬石은 朝鮮產米가增加되여 供給關係로보면그만큼 餘裕가 生한것인데 여기서 百萬石買上을 控除하더래도 百五十萬石쯤 內鮮米量을 合하면은 過剩(比昨年)된다고하니할수업스므로 目前은 如何間 需給上 大局으로는 오히려 實米潤澤을 말할수잇스니 材料로서는 殘米關係는 弱材料나 買上은强材料이니 結局 相殺하면 强氣側만의 利點이 그다지크게못하나 然이나 元來 物價高라는 嚴然한 根本的潛在勢力이 엇는만큼 賣方은 不利하다 따라 市勢는 當分 買上好感에 刺戟하면서强保合으로 推移하겟다는 見解가 相當有力하다 …의觀念이 胚胎되엿는만큼 高價飛付買는 警戒하는形勢가 內在되엿갓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	[illegible]	[illegible]
中	[illegible]	[illegible]
先	[illegible]	[illegible]

正米 各地一齊躍騰

京城急騰
內地在米豫想外의增 政府百萬石買上 淸算의 一等白米 二三、三〇 … ㊀三等三二、八〇 一等白米一三、三〇

仁川沸騰
豫想外의政府百萬石買上發表로 벌써內地로부터 昨日入荏活況을呈하고 實物薄인 때이므로 所持側의態度는 非常히强硬하다 正租의入手가困難하야 各地期米의 騰貴를 加하야 市勢는 四十錢高로 먼저新高價로 反撥하는 好況을呈하고잇다 …

釜山急騰
內地殘存米減少의 硬材三重奏로 產地는極度로 强硬하고 市場은 買氣熾烈하야 朝鮮米消費增、買上、淸算高等等價가 唱價도三十錢高로 …

大邱暴騰
在米減少、政府의 百萬石買上發表에 人氣에人氣는 자못强硬하고 期正米共히 一齊히 騰을演하야 玄米三等四十錢、正租一圓高라는 高値唱으로 …

群山爆發
殘存米發表는相當히 人氣에 動搖를 招來하야 第一回에 實甲하고 第二回에 買하다는 亂調子의 結果總計에 잇서서 人氣와가티 되엇스나 朝鮮內의 在米의減少를 多少禍根이 되엿는데 意外로政府의 百萬石第三次買上發表에 俄然人氣沸騰하야 休日中에內地로부터 入荏가殺到하야 晴氣配는 드듸여 三十錢高를 豫測하게 되엿다 …

木浦暴騰
殘存米는 豫想한바와가티 激減이나 朝鮮內在米高의 增加에人氣가 緩和되엿스나 突然政府의 第三次百萬石의 買上發表는곳 人氣에波紋을 이르켜 各地期米의 大上放에市 當히 煽動되여 먼저正租의一厘五毛 大奔騰을비롯하야 玄米一圓五十錢의 躍進이잇서 無貨物 …

朝鮮取引所證券取引員
明治證券
社長 金貴鉉
京城 代表電話本局②四一六七
顧客本位 眞實第一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長一六九、五六一、二三九六

朝取取引員
昭和證券株式會社
京城明治町一丁目
電本代表長二一二六

京城 金益證券
仁川 康益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マルタマ取引店

株式期米
相場必勝秘訣
六月末日까지送料共 時價金九十五錢
但五圓以上二割引
京城竹添町三丁目 中央出版社
振替京城八〇七六番

今日財界(十四日)
◆米(單位十錢) 仁川期米先限 大阪期米先限 京城白米 正租(仁川)一等 … [illegible]
◆株(先限單位錢) 鐘紡 東新 大新 朝新 … [illegible]

京城物價(十四日)
[illegible]

海外經濟(十三日)
[illegible]

銀行券(十三日)
[illegible]

金利
[illegible]

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illegible]

綿絲布
[illegible]

麥粉·綿油粕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朝取期米 / 大阪期米 / 東京期米 / 釜山期米 / 群山期米 / 木浦期米 / 大邱期米 /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東京短期 / 大阪短期 / 東京現株
[illegible]

綿絲 / 棉花 / 人絹 / 生絲 / 砂糖
[illegible]